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035.35 (-348.89)	837.03 (-12.26)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857 (-0.064)	1343.00 (+7.90)		

코스피 5%대 폭락… 6000선 간신히 지켰다

5.46% 하락한 6035.35 마감
시가총액 4980조로 쪼그라 들어
삼전 23만원, 하닉 144만원 마감
외인 4조5600억 어치 팔아치워
美 뉴욕·아시아 증시도 일제 하락

코스피가 13일 장중 6000선을 내주며 '검은 화요일'을 연출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발 쇼크'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에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5.46% 하락한 6035.35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911.11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4980조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 8월 19일 이후 55일 만이다. 올해 매도 사이드카는 26번 발동됐고 매수와 매도 등 사이드카 전체는 50번째다.

〈관련기사 3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7.39% 하락한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0.09% 하락한 144만3000원을 기록했다. 4조5600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외국인 매도세 탓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은 중국의 반도체 추격 이슈와 미국 국제금리 상승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담, 삼성전자 3분기 실적발표에 뒤따른 셀온(Sell-on·호재 속 가격하락) 등이 거론된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CXMT의 기술



반도체 가격 급등 ‘칩플레이션’ 우려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칩플레이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산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등의 영향이 점차 가게에까지 미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저장장치,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진열된 컴퓨터 부품 모습. /뉴시스

혁신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최근 CXMT는 연말까지 차세대 4F² 구조를 적용한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RDIMM)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4F²는 D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인 메모리 셀의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6F² 구조보다 셀 면적이 이론적으로 약 33% 작다. 실제로 생산이 이뤄진다면 한 장의 웨이퍼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CXMT의 과도한 기술 마케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중국의 연구개발(R&D) 능력이 빠르게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음’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나 전력 부족이 아닌 자금 조달이 AI 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혹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의 경고 역시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병목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극복해왔다. 지금의 메모리 부족도 1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며 “최대 제약 요인은 자본일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채권 금리 상승 등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시장의 우려에 전날 뉴욕증시에서 팔라

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67% 떨어졌다. 엔비디아(-1.3%), 마이크론(-3.9%), AMD(-2.3%)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무너졌다. 이날 니케이 225는 1.82% 하락했다. 홍콩,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보합권을 오갔다.

차츰 유가도 끊임없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라이트 국제공황 가격 효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날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84% 오른 배럴당 106.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韓 올해 성장률 3.3% 전망치 0.7%p 상향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이례적으로 고성장 국가반열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각각 3.3%, 2.8%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경제규모 세계 20위권에 드는 나라들 중 독보적이다.

IMF는 1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종전(2.6%·7월 전망) 대비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률에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3.0%에서 3.1%로 0.1%p 올랐다.

미국(2.3%)과 스페인(2.5%)을 제외하면 IMF가 비교한 선진국은 대개 1%대 이거나 1% 미만이었다. 일본 경제는 0.7%, 프랑스(0.4%)와 이탈리아(0.8%)도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1.3%)과 독일(1.3%), 캐나다(1.1%)는 각각 1%대 초·중반을 예상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1.9% 성장을 제시했다.

IMF, 3개월 만에 상향 조정 세계경제 전망 3.1%보다 앞서 내년 전망 2.8%, 0.3%p 올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 중 한국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예측치 역시 올려 잡았다. 종전의 2.5%에서 2.8%로 0.3%p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에는 주요국 중 한국과 미국(2.3%)을 제외하고 모두 2% 미만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세계(0.1% 상향) 및 선진국 평균(0.4%p 상향) 상향 폭을 모두 상회하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 물가·금리의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과 대만을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고, 원자재수출국 및 제조업거점국 등에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경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동긴장·무역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지만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압력,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metro

외교·통일·국방·법무부 등 44곳 5년내 세종 간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 행안부, 공무원 정원기준 9929명 27개 기관, 2995명 내년 중 이전

서울 소재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기조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기 과천에 홀로 남아 있는 법무부까지 남김없이 세종으로 이전된다. 그간 수도권에 잔류하던 중앙부처와 기관 등 44곳이 향후 5년 내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거지를 옮기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세종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중앙부처 5곳 포함)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도합 9929명 규모다. 앞서 완료된 1차 이전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이전은 업무 특성 및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축 후 이전’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민간에서 빌린 임시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이전 행렬의 선두에 서는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2027년 상반기로 잡혔다.

이어 내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

지능전략위원회 등 각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하는 수준이다. 다만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경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해진다. 현행 법이 법무부·성평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보안·관계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다. 국가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 및 부처와 연계된 소속기관 9곳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청와대 연계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이후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대상 선정 기준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내년 임시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임시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총 3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 286억 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사건 처리는 관여 안 해” /사진 뉴시스
▲‘국힘 397억 반환’ 걸린尹 선거법 2심, 이달 27일 선고

▲강득구 “한동훈 딸 직접 수업 증빙자료 공개하라”…경찰 재수사 촉구
▲주진우, 李 대통령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결제내역 공개하라”

▲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법무부, 초대 공소청장 인선 착수…후보 추천위원장에 문무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거래 위축’ 확산… 양극화 우려 커져

서울 아파트값 87주 연속 오름세
전월대비 거래량 40% 가까이 감소
금리·대출 규제 등 불확실성 영향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시장은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가까이 급감했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상승과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7만2976건으로 전월(8만5163건)보다 14.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7만8380건)과 비교해도 6.9% 줄어든 규모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거래량은 2025년 1월(6만3857건)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래금액도 줄었다. 8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금액은 28조8532억원으로 전월(37조5174억원)보다 23.1%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의 거래 감소가 두

드러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3546건으로 전월(4만1914건)보다 20.0% 줄었다. 거래금액 역시 16조28억원으로 전월(22조3282억원) 대비 28.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0.7%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2.7% 증가했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주택 거래가 시장 규모를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거래 위축이 가장 심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529건으로 전월(5855건)보다 39.7% 급감했다. 거래금액도 3조9729억원으로 전월(6조6786억원) 대비 40.5%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는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 상승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에 이어 울산(-27.5%), 전남광주(-23.0%), 경기(-22.5%), 대구(-16.7%) 순으로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16개 시도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세종이 유일했다. 세종의 거래량은 306건으로 전월보다 4.4% 늘었다.

비아파트 시장도 대체로 부진했다. 8월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2905건으로 전월보다 13.4% 감소했고, 연립·다세대는 12.9%, 단독·다가구는 10.1% 줄었다.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도 17.1% 감소했

다. 반면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3139건으로 전월보다 23.5% 늘어 9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다만 거래금액은 7235억원으로 61.8% 급감해 거래건수 증가가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이 매수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눈높이 차이가 커지고, 자금 조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8월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은 주요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매매 수요는 입지와 자산 유형에 따라 더욱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840원 역대급 엔저… 환전 급증

주간거래 기준 원·엔 환율 849.72원
5대은행 엔화 예금 5주만에 6.63% ↑

원화 대비 엔화값이 연일 100엔당 840원대에 거래되며 18년 만에 최저(엔화값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급 엔저에 국내 엔화 환전액도 급증했다.

13일 서울외환시장 원·엔 환율은 100엔당 849.7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종가인 843.29원과 비교해 6.43원 오른 수준으로, 원·엔 환율은 6거래일 연속으로 100엔당 840원대에 거래됐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40원대까지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엔화는 뚜렷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의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58.61엔을 기록했다. 미·일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지속하며 엔화값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 선을 위협하고 있다. 엔화값의 약세 요인으로는 미·일 중앙은행 간 금리차, 일본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엔화 자산의 안정성 약화 등이 꼽힌다.

‘역대급 엔저’에 엔화 환전도 늘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고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5대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총 1조1545억엔으로, 지난 8월 말의 1조827억엔과 비교해 약 5주 만에 718억엔(6.63%) 늘었다.

엔화값이 약세인 반면, 원화값은 연일 상승세다. 13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달러당 1345.1원을 기록했다. 주간 종가가 2024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전일보다 10원 올랐지만, 전반적인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SK어스온, 베트남 ‘황금낙타’ 원유 생산

원유 약 6000만 배럴 회수 추정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베트남에서 원유 생산과 후속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냈다.

SK어스온은 베트남 15-1/05 광구에 있는 ‘황금낙타’ 유전에서 지난 9월 말 첫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이후 광구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Murphy Oil Corporation)가 생산 준비를 조기에 마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황금낙타 유전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유는 약 6000만 배럴이다. 현재 첫 번째 생산장에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머피는 추가 생

산정을 순차적으로 시추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광구 전체 기준 하루 생산량은 최대 2만5000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생산 개시로 SK어스온은 2003년 원유 생산을 시작한 15-1 광구에 이어 베트남 내 생산 거점을 확대했다.

황금낙타 유전 주변에서는 생산 확대를 뒷받침할 탐사 성과도 이어졌다. SK어스온과 머피는 인근의 ‘북하얀낙타’로 불리는 지질구조에 탐사정을 시추해 약 3800m 깊이에서 56m 두께의 유층을 발견했다. SK어스온은 북하얀낙타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황금낙타와 북하얀낙타를 연계 개발해 자원량과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2026 대한민국

국화 대전

함평엑스포공원

2026.10.23(금)~11.8(일)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국제관광재단 후원 | 함평혁신산업부 농촌진흥청 전남광주특별자치군 전남광주특별자치군교육청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화동맹회

외국인 203조 팔았다… 반도체 호실적 기대마저 ‘무색’

삼성·SK하이닉스 매도액 87% 줄려
비중 조절 끝나다 6일 연속 ‘팔자’
AI투자 과열·중국 추격에 불안 커져
대만 대비 투자 매력 약화로 복귀 난항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3분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비율 조정)이 끝났고, 원화값도 2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순매도가 이어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시장은 낙관과 비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합산 6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0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장밋빛 전망이 이어진다. 특히 빅테크들의 투자가 견고해 칩 공급 부족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무서운 추격과 인공지능(AI)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려면 AI 투자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 회복과 원화 안정,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외인 매도, 반도체 신뢰 추락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에서 4조5411억원을 순매도했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03조6000억원을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개인은 100조5000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대거 팔고, 개인은 사들이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다.

앞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관 투자자가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원화 강세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부분인 외국인들이 상반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한국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에 3분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줄어든 것이라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팔자’가 계속되는 것이다.

외국인 매도는 ‘셀 반도체’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각각 87조1700억원, 89조2200억원어치 팔았다. 두 종목 순매도액이 외국인 전체 순매도의 87%에 달한다. 두 종목 모두 4월 한 달 순매수를 기록한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챗GPT-3.5 출시 이후 2023년부터 시작된 AI 강세장 이전 수준까지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왜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것일까. 시장은 ‘무너진 신뢰’에서 답을 찾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AI 투자에 거품 위험이 있으며, 붕괴할 경우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최근의 AI 투자 급증 속도가 1840년대 영국 철도광풍(4년간 2.7배)이나 1990년대 닷컴 버블(5년간 1.9배)보다 빠르다고 경고했다.

◆코스피 이끌 외국인, 언제쯤?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이날까지 28.80% 급락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

지수는 3.94% 상승했다. 7일엔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에도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피 약세를 ‘거시 경제 탓’으로 돌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AI 관련 유망 투자처로 대만 증시를 꼽았다. 한국 코스피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마땅한 AI 수혜 기업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정책 실패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증시는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네트워킹·서버 등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크게 집중돼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의구심이 커질 경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때 가장 뜨거운 증시였던 코스피에 싸늘한 평기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4~10일 펀드매니저 87명(총 운용자산 2110억달러)을 대상으로 실시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0%가 대만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한국 주식의 경우 25%에 불과했다.

한국 증시의 큰손 외국인의 발길을 돌릴 해법은 없을까. 불안한 원화 강세는 꼭 시장 편만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일 1335.1원으로 약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3일에는 외국인 매도 속에 하루 만에 10.0원 오른 1345.1원으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익의 확산에 대한 시장 확산 여부를 외국인 귀환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에도 수급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삼성, AI 메모리 3대 전략 공개 속도·확장성·영속성 경쟁력 강화

美 OCP 서밋서 차세대 기술 소개
CXL로 AI 메모리 용량 확장 추진
AMD와 차세대 확장 솔루션 시연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보기술(IT) 인프라 행사에서 속도와 확장성, 영속성에 초점을 맞춘 새 메모리 전략을 공개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물론 CXL 메모리 모듈, 기업용 반도체 디스크(SSD)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메모리 제품군을 선보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심호준 DS부문 메모리사업부 AE팀 상무는 현지시간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CP(오픈컴퓨트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OCP는 데이터센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설계를 개방형으로 공유하는 협의체로, 글로벌 클라우드 및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AI 인프라 분야 행사다.

AI 모델이 대형화하면서 추론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KV캐시(임시저장키값) 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KV캐시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앞서 처리한 문맥 정보를 저장해 재사용하는 데이터다. 이에 따라 메모리 대역폭뿐 아니라 용량 확장과 데이터 저장 기술이 AI 반도체의 핵심 요

소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대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속도 부문에서는 최첨단 HBM5와 맞춤형 HBM을 준비 중이다. 연산 칩 위에 메모리를 쌓는 zHBM, 간단한 연산을 메모리 안에서 처리하는 PIM(프로세스 인 메모리)도 함께 제시했다.

확장성 부문에서는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대체 기술인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와 이를 적용한 메모리 모듈 ‘CMM-D(CXL Memory Module-DRAM)’가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영속성 부문에서는 차세대 기업용 SSD 등 최신 스토리지 기술을 앞세워 대규모 AI 데이터의 저장 성능과 용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행사장 전시 공간에 3대 전략의 핵심 제품도 내놨다. HBM5 목업(mockup)과 웨이퍼 등이 전시됐다. 삼성전자는 또 AMD와 CXL 기반 메모리 확장 솔루션을 공동 시연해, 기존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174,000m³급 LNG선 1척
대한민국 1일 LNG 사용량 운송

295.5m

365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에너지

5대양 6대주를 넘어, 거친 파도를 넘어
매일 멈추지 않고 항해하는 천연가스 여정.
국민이 걱정없이 일상을 누리는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없이 자라는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위성·AI로 우주 연결한다... AX 플랫폼 전환에 18조 투입

36 KT



◆ 6G 기술 선점... 위성·AI로 지상에서 우주까지 연결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2030년 6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6G의 핵심은 지상과 비지상망, AI와 네트워크의 연결이다. 통신 음성 지역에서 끊임없는 연결을 위해 지상 기지국과 위성을 연결하고, 기지국을 AI 추론까지 처리하는 연산 거점으로 활용한다.

앞서 KT는 위성 자회사 케이티셋(KT SAT)을 통해 저궤도 위성 시스템과 지상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하는 기술을 꾸준히 검증해왔다. 지난 2024년에 무궁화위성 6호를 5G 비지상네트워크(N-TN) 표준으로 연동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6G 저궤도 위성 사업을 위해 지상 통신망과 저궤도(LEO)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KT SAT이 보유한 정지궤도(GEO) 위성 운용 역량과 결합해 더 넓은 범위에서 통신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6G 상용화 위해 위성·AI 연동 추진
지상 기지국, AI 연산 거점으로 활용
초저지연 AI-RAN 기술 상용 검증

자체 모델 '믿음'으로 AI 주권 사수
MS와 4.6조 공동투자로 B2B 집중
소버린 AI 전략으로 독자성 확보

또 한가지는 6G 시대에 주목받는 네트워크 기술인 'AI-RAN'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선접속망으로, 자율 주행 등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건을 기지국 가까이에서 제어해 초저지연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통신 장비가 탑재된 기지국을 하나의 AI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다.

통신기업 중 유일하게 AI-RAN 구현에 유리한 5G SA(단독모드)를 상용화한 것도 강점이다. 5G 코어망에서 AI 기반 트래픽 분석부터 네트워크 최적화까지 자동화 구현이 쉽고,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서비스별로 네트워크 자원을 배분해 사용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AI-RAN을 공동 개발하고 상용망 검증을 마쳤다.

◆ '믿음' 키우고 AI 주권 사수...빅테크와 실리적 동맹

KT는 '핵심적인 데이터 주권은 지키고 기술적 이점은 취하는 실리적 소버린 AI'를 추진하고 있다.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집중된 AI 생태계에서 외산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데이터 통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우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믿음'을 AI 주권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업간거래(B2B)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

대한민국 주요 기간산업 가운데 하나인 통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KT가 다시 '기본'에 힘을 싣는다. 통신업계 '만형' KT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대중화의 문을 열었으며 이제는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AI 주권 확보를 위한 독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금융·공공 시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확대 중이다.



① 지난 7월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엠베서더 서울 이스트 호텔에서 KT 박윤영 대표가 'AX 플랫폼 컴퍼니'와 관련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② KT 광화문 사옥. ③ 박윤영 대표(오른쪽)가 지난 3월 과천시 KT 네트워크 보안 관제 센터를 방문해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을 보고 있다. ④ 박윤영 KT 대표(가운데)가 지난 4월 부산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통신 인프라를 점검하고 있다. ⑤ 박윤영 KT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8월 KT 클라우드 목동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살펴보고 있다. /KT

다. 2024년 당시 선보인 '믿음 K 2.0'은 한국어에 최적화된 모델로, 데이터 주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외산 AI 모델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일부 AI 모델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독자 모델 '믿음 2.0', 오픈 모델인 메타의 '라마', 협력 모델인 마이크로소프트(MS) GPT-4o 기반 한국형 AI를 전략적인 AI 인프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

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8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재원을 공동 투자해 기업간 거래(B2B) 사업에 집중한다.

올해 취임한 박윤영 KT 대표도 MS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KT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데이터 유출에 민감한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소버린 AI를 지향점으로 삼는다.

◆ 30년 쌓아온 서비스 경쟁력...금융·공공 AX로 확장

KT의 B2B 사업의 밑바탕에는 서울 혜

화전화국이 있다. 이 곳은 국내 최초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로, KT는 1999년 기업의 서버와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후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했고, AI 시대에는 AI 데이터 센터(AIDC)를 통해 기업과 AI 연산 인프라를 연결하고 있다.

매년 기업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금융·공공 영역에 AI 서비스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전환(AX)을 이끌고 있다.

KT가 특히 집중하는 분야는 금융이다. 최근 우리은행의 상담봇 재구축 사업에 에이전틱 AICC 적용을 발표하면서 금융 AX 사업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현재 금융권 70여개 기업중 61개 기업에 KT의 AICC를 도입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87%에 달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지난 4월 KT클라우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한 공공용 AI 파운드리를 출시했다. 핵심 서비스인 검색증강생성(RAG) 스위트(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은 제품군)는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해 생성형 AI 답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과 벡터DB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등급을 획득해 공공 시장에 조달할 수 있게 됐다.

30년 서비스 노하우 바탕 AX 확장
금융 AICC 시장 점유율 87% 달성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으로 신뢰

AX플랫폼에 향후 5년간 18조 투자
2028년까지 AX 매출 2배 확대하고
현재 영업이익률 6%대 → 9% 목표
별도 조정 단기순이익 50% 주주환원

◆ 18조 투입해 AX 플랫폼 전환 가속...주주환원도 이어가

KT의 AX 전략은 'AX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AI 모델과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업무를 실제로 바꾸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AX 플랫폼으로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18조원을 투자한다. 투자 재원은 정보보안·IT(4조원), 네트워크(8조원), AIDC·해저케이블(6조원)으로 크게 분산 배치했다.

대규모 투자에 따라 수익성 수지도 제시했다. 2028년까지 AX 매출을 2배로 확대하고, 현재 약 6%대의 연결 영업이익률을 9%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별도 조정 단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통해 투자 확대에 따른 주주들의 우려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KT의 '연결'은 AI 시대로 이어진다. 박윤영 대표는 올해 7월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연결의 대상이 확장되는 AX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연결을 책임지는 KT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닿아야 하잖아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생영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수백억 쏟은 금융권 보안체계 무력화… 사각지대 점검 시급

해킹에 뚫린 금융보안

〈上〉투자 실효성

금융권의 해킹 공격과 정보유출사고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공격 등으로 기존 방어체계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안투자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부 해킹(AI 도구 활용 공격 및 외부 위탁업체·대출모집인 등 외부 접근 경로 취약점 공략)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이다. 은행 4곳(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3곳(에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이다.

◆ 보안 투자·인력 운용 제각각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년 수백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투자 규모와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액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2025년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은 4634억원, 정보보호부문



〈신한은행·국민은행 정보보호 투자비교〉

/한국인터넷진흥원

구분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2024년	2025년	증감	2024년	2025년	증감
정보보호 투자액(억원)	370	369	-1	425	433	8
정보보호 투자비중(전체 IT 투자액 대비, %p)	8.6	8	-0.6	7.5	8.2	0.7
정보보호 전담인력(명)	91.0	97.8	6.8	97.1	96.7	-0.4

/Chat GPT 생성 이미지.

신한은행, 연간 정보보호 투자 369억
개인신용정보 관리 6년 연속 S등급
KB국민은행, 정보보호 투자 433억

금융사 자체적 구축한 보안체계
위탁업체 통한 침입 차단 점검 필요
취약점 신속 발견·개선 등도 중요

투자액은 36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IT 투자액은 4288억원에서 4634억원으로 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IT 투자액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이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024년 91명에서 지난해 97.8명으로 6.8명 늘었다.

KB국민은행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531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433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2024년 국민은행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5673억원으로 그 중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이 425억원으로 7.5%로 집계됐다. 전년 보다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이 늘었다.

다만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2024년 97.1명에서 96.7명으로 0.4명 줄었다. 전체 IT투자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은 확대했지만 전담인력을 소폭 축소한 것이다.

◆ 최고등급 인증에 24시간 관제까지
주요은행은 그동안 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해 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

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ISO27001) 등 국내외 인증도 확보했다. 내부 해킹 대응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보안원과 정기적인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국내 금융권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역시 고객정보 접근 시 추가 인증을 적용하고 인가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B금융그룹은 올해 1월 그룹사이버보안 센터를 출범시켜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과 상시 보안관제를 담당하는 ‘블루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인력으로 제한하고, 접근 목적과 사유를 등록·관리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안 인증과 관리체계에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보안점검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보안체계가 외부 업무지원시스템이나 위탁업체 등을 통한 침입까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각종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최근 공격이 핵심 금융거래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외부 업무시스템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안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취약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개선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신한금융, 6933억에 롯데손보 품었다

최대주주 빅투라 지분 77.04% 인수
그룹 판매 채널·디지털 역량 결합
비은행 부문 수익성 기여 확대 전략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계약을 맺고 손해보험 사업 확대에 나섰다. 롯데손보의 334만 고객과 장기보험 영업 기반에 그룹의 판매 채널·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비은행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잔여 지분 확보와 자본확충까지 추진하는 만큼, 인수 이후 통합 성과가 투자 효율을 가를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회장 진옥동)는 이날 이사회에서 롯데손보 인수안을 의결하고, 최대주주인 빅투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빅투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계약 대금은 6933억원으로, 보통주 2억 3908만 2287주를 주당 2900원에 사들이는 구조다. 같은 가격을 전체 발행주식에 적용한 지분 가치는 약 9000억원이다. 금융당국 승인 등 선행조건을 충족한 뒤 거래가 종결된다. 취득 예정일은 미정으로, 최종 취득금액은 거래 종결 때 확정된다.

◆ 334만 고객·장기보험 기반에 신한 채널 결합

이번 계약은 장기간 이어진 매각 협상의 결실이다. 2019년 롯데손보 경영권을 확보한 JKL은 2023년부터 재매각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우리금융이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매각이 지연됐고, 올해 신한금융과의 협상도 가격 이견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렀다. 신한은 인수 전략은 규모가 작았던 손보 사업을 확대해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2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보

년 출범한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롯데손보의 고객과 판매 기반을 활용하면 장기보험 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롯데손보의 상반기 말 자산은 13조 6376억원, 보험계약마진(CSM)은 약 2조 2000억원이다. CSM은 보유 보험계약에서 향후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인식할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편입이 완료되면 신한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그룹 채널을 통한 신규 영업을 더할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신한은 롯데손보의 장기보장성보험 중심 영업 기반에 그룹의 다양한 채널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영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신한EZ손보와의 통합으로 중복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사업 규모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함께 이뤄져야 비은행 부문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지분 매입 넘어 자본구조 개선

인수대금은 전체 투자에서 첫 단계다. 신한은 금융당국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잔여 지분 22.96%를 추가 확보하고, 완전자회사 편입 후 신한EZ손보와의 통

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분 매입대금과 별도로 재무건정성을 높일 추가 재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잔여 지분 확보 방식과 추가 자본 투입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손보는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 537억원 흑자를 냈지만, 투자손실 791억원이 겹치면서 순손실 18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리부자산과 일부 외화자산의 평가손실이 투자손익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만 보면 순이익 13억원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6월 말 총 지급여력(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다.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회사 발표 기준 -5.4%로, 직전 분기 -21.4%보다 개선됐다. 보험 본업의 이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인수 후 과제다.

신한은 완전자회사 편입 후 자본구조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기준은 50%지만 적기시정조치 적용에는 9년의 경과기간이 마련돼 있다.

신한은 외부 조달 없이 그룹이 보유한 자본을 재배치해 인수를 추진하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고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임직원·설계사와 소통해 고용 안정과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사업 경험과 고객·영업 기반을 강조하며 “이런 강점을 그룹의 자본·리스크 관리와 고객·디지털 역량에 더해 보험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왼쪽부터)김재민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장, 김중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도날드 뵘가리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은행감독국장, 솔리스띠오 다르마완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금융지주감독국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이영직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장, 조명현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 출범

업계 최초… 현지 임직원 900명 근무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을 현지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겸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금융그룹’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분 이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보유하던 현 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50%+1주씩 보유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1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해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인도네시아 재계 4위 기업집단인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기업금융과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시나르마스의 현지 산업 네트워크와 신한금융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기반을 갖췄다”며 “시나르마스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 생산 확대 차세대 AP시장 정면승부 나선다

갤럭시 S시리즈 모델 추가 검토
엑시노스 탑재 범위 확대 가능성
연산 성능 등 경쟁력 시험대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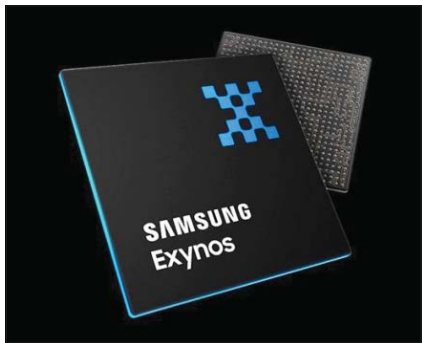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의 생산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칩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S27 울트라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엑시노스의 성능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엑시노스 2700의 초기 생산 물량을 전작보다 약 10%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IT 매체 더블유씨씨에프테크(Wccftec)는 최근 정보 유출자(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700의 생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엑시노스 2700에는 삼성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작인 엑시노스 2600에 적용된 1세대 2나노 공정(SF2)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성능 시험 결과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외 IT 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엑시노스 2700은 내부 각벤치6 멀티코어 시험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엑스트림 6세대’보다 약 9.5%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초기 벤치마크 점수만으로 실제 스마트폰에서의 성능을 판단하기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심벌. /삼성전자

어렵다. 엑시노스 2700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은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 성능이다. 모바일 AP는 높은 연산 성능을 확보하더라도 전력 소모가 크거나 발열이 심하면 장시간 사용 시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고사양 게임과 인공지능(AI) 기능 등 연산 부담이 큰 작업에서는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과거 엑시노스 일부 제품에서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를 겪었다. 이후 중앙처리장치(CPU) 구성을 변경하고 AMD와 그래픽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성능 개선에 나섰다. 엑시노스 2600부터는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전력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엑시노스 2700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갤럭시S27 시리즈의 제품 구성 변화도 엑시노스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존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외에 프로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형과 플러스, 프로 모델에는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을 나눠 탑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외 IT 매체 샘모바일은 최근 갤럭시 S27 울트라에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이 독점 탑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부 지역에 엑시노스 2700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퀄컴 칩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갤럭시S23부터 올해 갤럭시S26까지 국내 출시 울트라 모델에 4세대 연속 퀄컴 칩을 채택했다. 지난해 갤럭시S25 시리즈는 기본형부터 울트라까지 전 모델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다.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S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제품인 만큼 AP의 연산 성능뿐 아니라 발열과 전력 효율, 안정적인 공급 능력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700의 생산 물량을 늘리더라도 실제 제품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최상위 모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 2700은 차세대 공정 적용으로 성능 개선이 기대되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열과 전력 효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상위 모델에 적용하려면 성능뿐 아니라 양산 수율과 공급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이 같은 부분들이 향후 탑재 범위를 확대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HD현대는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멘스와 함께 ‘글로벌마린센터(Global Marine Center)’ 개소식을 가졌다. HD한국조선해양 김형관 대표(왼쪽 세번째), 지멘스 로버트 존스(Robert Jones) 최고수익책임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HD현대-지멘스, 조선소 디지털 전환 속도

HD한국조선해양 ‘글로벌마린센터’ 개소

HD현대가 지멘스와 손잡고 선박 설계부터 생산·유지보수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조선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양사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거점을 마련하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과 실제 조선소 적용을 본격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글로벌마린센터(Global Marine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마린센터에는 선체·전장·배관·선실 등 선박 설계·생산 분야와 인공지능(AI) 플랫폼, 제품수명주기관리(PLM) 분야의 양사 전문인력 50명이 근무한다.

양사는 선박 설계부터 생산·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3차원(3D) 모델로 통합하는 차세대 마린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상 환경에서 생산 공정과 설비 운영을 사전에 검증하는 디지털 조선소를 구현하고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해 지능형 조선소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 그룹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플랫폼의 기술 전략과 원천기술을 지원하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HD현대삼호 영암조선소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효율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유혜온 기자 dhale@

삼성重, 美·인도 등 해외 조선사 협력 강화

기술·설계 지원 등 사업영역 확장

삼성중공업이 해외 조선사와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및 생산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13일 인도 매체 이코노미타임스(ET)에 따르면 스완 방위산업중공업(SDHI)은 인도 해운공사(SCI) 주도의 중형(MR) 석유제품운반선 입찰에서 착당 약 4800만달러로 최저가를 제시했다. 사업 규모는 확정 2척과 옵션 2척 등 최대 4척, 약 2억달러다.

삼성중공업과 SDHI는 지난해 9월 상선·특수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DHI의 비핀 쿠마르 사세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현지 언론에서 삼성중공업이 선박 설계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자재 패키지를 제공하고 SDHI가 구자라트주 파파바브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선박별 설계료·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구상을 밝혔다. 양사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8척 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군수지원함 설계와 조선소 자동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 나스코(GD NASSCO), DSEC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에 참여해 대덕연구센터의 대형 수조 시험 기반 선형 설계 기술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지원한다.

지난 4월에는 GD 나스코 경영진과 NGLS 사업 및 조선소 현대화·자동화 협력을 논의했다. 삼성중공업은 추진 중인 로봇 전환(RX) 기반 24시간 무인·자동화 조선소 기술을 활용해 설계·건조 지원에서 생산공정 자동화·솔루션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조선소에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은 직접 인수운영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 부담을 줄여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현지 업체와 수익을 나누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LG화학, 日 도쿄팩 참가… ‘유니커블’ 소개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

‘LG Chem Packaging House’ 운영

LG화학이 초박막 단일소재 포장필름의 기술력과 상용화 사례를 앞세워 일본·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복합재질 포장필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성을 높인 소재로 고객사의 포장재 전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팩(TOKYO PACK) 2026’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시부스는 집을 본뜬 ‘LG Chem Packaging House’로 구성한다. 리빙(Living)·키친(Kitchen)·케어(Care) 등 세 공간에서 일상 속 제품에 적용된 포장재를 소개하고

기술 상담 공간도 운영한다.

LG화학이 선보일 핵심 소재는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 ‘유니커블(UNIQABLE)’이다.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기존 복합재질 필름과 동등한 물성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화학은 단일소재 필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12마이크로미터(μm) 두께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커블은 식품·펫푸드·생활용품 포장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LG화학은 국내 대표 제과 전문기업 크라운제과와 공동 개발한 포장재를 주요 스낵·캔디 제품에 적용한 사례를 공개한다.

/원관희 기자

LS일렉트릭, AI 인프라 사업 중심 실적 질주

북미 AI DC용 배전설비 공급 확대
美 생산시설 확충… 차세대 기술개발
3분기 매출·영업익 큰 폭 개선 전망

LS일렉트릭이 북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배전설비 공급 확대와 초고압변압기 증설 효과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전반과 변압기 수주잔고도 늘어나면서 미국 생산시설 확충과 차세대 직류 전력기술 개발을 통해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6.84% 늘어난 1조6643억원, 영업이익은 91.47% 증가한 1930억원으로 예상된다.

북미 수출 물량 증가와 주요 제품 가격 인상, 초고압변압기 증설 효과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외부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와 서버·냉각설비에 전력을 나눠 보내는 배전설비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이들 제품을 함께 공급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8월에는 북미 빅테크 고객사의 물량 확대 요청으로 AI 데이터센터용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계약이 기존 1064억원

에서 230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6월 체결한 계약의 공급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납품한다. 이달 1일에는 약 1812억원 규모의 북미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용 초고압변압기 계약을 확보했다. 9개 변전소에 2030년까지 345kV급 초고압변압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주 범위는 데이터센터 현장 발전설비로도 확대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블룸에너지와 약 1853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빅테크 데이터센터의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에 고압 수배전반과 배전용 변압기를 함께 공급한다. 납품은 내년 4~7월로, 이번 계약을 포함한 블룸에너지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6700억원을 넘어섰다.

북미 수요 확대는 매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배전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5.4% 늘어난 4193억원을 기록했다. 초고압변압기 매출도 부산공장 증설에 따른 공급량 확대에 힘입어 91.2% 증가한 1581억원에 달했다. 북미 매출은 약 4000억원으로 해당 지역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LS일렉트릭은 늘어난 주문에 대응할 생산능력도 확보했다. 1008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부산공장 증설을 완료했

으며 자회사 LS와워솔루션을 포함한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연간 매출액 기준 약 8000억원으로 확대해 올해부터가 동하고 있다.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북미 배전설비 공급능력도 늘리고 있다. 총 2500억원 규모의 미국 유타주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며 202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증설 후 배전반 생산능력은 연간 매출액 기준 약 5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텍사스주 배스트럽 캠퍼스와 함께 현지 영업·설계·생산·서비스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84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LS일렉트릭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변환 손실을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변압기·반도체차단기·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시스템 등 직류 전력설비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외부 전력망과 연결하는 설비부터 내부 배전설비까지 공급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을 함께 공급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이 수주 경쟁에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中企,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에 날개… 제조혁신·생산성 ‘쑥’

‘스마트비즈니스엑스포’ 코엑스에서 개최
삼성 지원 中企 53개社 성과 공개

선일금고, AI로 도장 불량 판별
불량률 3%서 0.5%로 감축 목표

대기업 등 60여곳, 中企 6800곳 지원
李 장관 “대기업 자본·기술 공유해야”

1972년 창업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K-금고’를 수출하는 등 50년 넘게 한우 물을 파며 국내 1위의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일금고.

역사와 명성을 갖고 있는 선일금고가 최근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금고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선일금고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동안 시스템들을 전산화하고 제조실행시스템(MES)을 구축하는 등 모든 공정에 대해 스마트화를 끝냈다.

선일금고 신동열 연구소장은 “모든 금고는 도장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도장 품질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AI 비전 카메라를 도입, 도장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제조 과정에서 남아 있는 기름을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비즈니스엑스포(Smart Biz Expo) 개막식’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뺏아내는 공정을 표준 레시피로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에 3% 수준이던 불량률을 0.5%까지 낮추고 폐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일금고를 포함해 삼성전자로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혁신성·생산성을 제고하며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들 구축기업 53개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비즈 엑스포 2026’에 모습을 드러냈다.

‘스마트비즈니스엑스포’는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현장을 혁신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행사다. 올해엔 생활용품·산업용품·기계설비·부품 소제·생활가전 37개사, AI 특별관 6개사, 상생마켓 10개사가 참여했다.

선일금고, 터보링크, 프리피아, 오토스, 윗티컴 등 AI 특별관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AI트랙’을 통해 사업비의 75%(최대 3억원)를 지원받아 생산현장에 적용한 제조AI 기술과 성과를 뽐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793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2700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중소기업 현장의 제조혁신을 돕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 개막식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성장의 온기가 현장에 닿기 위해선 대기업의 자본과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함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이제 스마트공장도 생산 자동화 단계를 넘어 AI가 현장의 판단을 돕고 제조경쟁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리는 제조AI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진행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60여개 대기업

과 공기업이 참여해 총 6800여 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왔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제조현장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음은 물론이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은 “앞으로 10년, 양극화의 주요 변수는 AI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AX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미래의 양극화 심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AI가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필수 생산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중소기업 현장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인 디팜스테크를 찾아 디지털 전환과 AI가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전환부터 피지컬 AI 도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 강화, 제조AI 핵심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고 피지컬AI 등 국가 전략프로젝트의 온기와 성과가 중소기업까지 이어져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AI 앞세워 미래시장 공략

한국전자전서 신기술·제품 공개
삼성, AI 가전으로 생활 편의성 강화
LG, 데이터센터 냉각·B2B 사업 확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전자전에서 AI 가전과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집안 일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LG전자는 가전 기술을 냉각 설비와 로봇 부품으로 확장해 기업 간거래(B2B) 사업을 강화한다.

양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7회 한국전자전(KES 2026)’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869㎡ 규모 전시관에 가전·TV·모바일 체험 공간을 마련했으며, LG전자는 902㎡ 규모 전시관을 생활 공간과 산업용 기술을 소개하는 두 구역으로 구성했다.

◆삼성, 식재료 관리·세탁까지 AI 적용
삼성전자는 식재료 관리와 세탁 조건

설정 등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AI 기능을 소개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하는 ‘AI 푸드매니저’를 탑재했으며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 상태에 따라 세탁 강도와 건조 온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처럼 가전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AI 기능은 TV에도 적용됐다. 대화형 기능인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시청 중인 콘텐츠의 관련 정보를 안내해 별도의 검색 과정을 줄여준다.

모바일 공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화면 활용성과 휴대성을 강조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201g 무게의 폴드8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헤리티지존에서는 첫 갤럭시 폴드부터 최신 모델까지 기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제품 체험과 연계한 구독 상담도 진행한다.

◆LG, 냉난방·모터 기술로 B2B 사업 확대

LG전자는 약 60년간 축적한 냉난방공조 기술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비를 선보인다. 차가운 물을 만드는 칠러와 냉각수 분배장치(CDU), 반도체의 열을 흡수하는 쿨드 플레이트를 함께 배치해 반도체에서 발생한 열을 처리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같은 냉각 기술은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북미 인프라 기업 에어와 장기 계약을 맺고 총 5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칠러 등을 순차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관련 수주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에어와는 CDU 공급도 논의 중이다.

냉난방공조와 함께 가전 모터 기술도 산업용 부품으로 확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탁기 DD모터 기술을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로 발전시킨 과정을 소개한다. 생활 공간에서는 집과 차량을 연결하는 AI 기능을 선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소진공, 공공배달앱 경쟁력 높인다

인태연 이사장, 상생배달앱 간담회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사업장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잇따라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인태연 이사장은 서울 성수동에서 민간 전문가 및 공공배달앱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배달앱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배달앱 시장의 강력한 과점진단 ▲공공과 민간의 협업 지원방안 ▲공공배달앱 통합운영방안 ▲생활 인프라 주도권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진공은 공공배달앱과 배달대행사,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민간 전문가, 소비자 및 입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해 2027년 상생배달앱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 이사장은 “배달앱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기반인 만큼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배달앱 이용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LS머트리얼즈, AI 데이터센터 전력시장 첫발

美 기업과 690억 UC 공급 계약

LS머트리얼즈가 국내 울트라캐패시터(UC)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LS머트리얼즈는 미국 수소연료전지 기업에 약 5150만 달러(약 69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용 UC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LS머트리얼즈 별도 매출 약 290억원의 2.4배에 달한다. 계약 물량은 오는 2027년 4월부터 약 1년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 계약도 협의 중이다.

앞서 LS머트리얼즈는 지난 7월 해당 기업과 약 470만달러(약 63억원) 규모의

초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포함한 누적 수주액은 약 5600만달러로, 연내 추가 계약이 성사되면 총 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LS머트리얼즈는 그동안 풍력발전 터빈과 무인운반차(AGV),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하던 UC의 공급 영역을 AI 전력 인프라로 넓히게 됐다.

최근 AIDC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UC는 순간적으로 대용량 전력을 충·방전해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하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혜은 기자

한화 K9 자주포, 美 독립연도 만 제식명 획득

美 육군, K9 차륜형에 ‘XM1776’ 부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차륜형 자주포가 미국 육군으로부터 독립 연도를 상징하는 제식명을 부여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 전시회 ‘AUSA 2026’에서 K9 차륜형 자주포(K9MH)의 제식명 ‘XM1776’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미국 육군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의 K9MH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시제 1호기를 납품했다. 미 육군은 개발·시험 단계 장비에 ‘X’로 시작하는 제식명을 부여하고, 공식 채택 이후에는 X를 제외한다. 1776은 미국의 독립 연도로, K9이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장비가 되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 약 3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K9MH 실물을 선보였다.

유도탄·발사대 전시구역에는 다연장로켓 천무 발사대와 유도탄 포드 3종,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 전시회 ‘AUSA 2026’에서 제식명 XM1776을 받은 K9 차륜형 자주포(K9MH)를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도탄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했다.

컨테이너형 천무와 컨테이너형 수직발사대(CVLS)를 통해 지상·해상 발사체계 역량도 소개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예약부터 결제까지… 이용자 5000만 카톡, AI 비서 된다

이프 카카오 2026

AI 비서 ‘카나나 스페이스’ 주목
오는 12월부터 베타 테스트 진행

이용자 기반 연결로 커머스 수익화
개인정보·실행 안전성 확보는 과제

카카오가 5000만 이용자 기반의 카카오톡을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실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문과 예약, 결제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국민 메신저를 AI 서비스의 핵심 유통망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6’을 열고 차세대 AI 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슬로건은 ‘모든 연결에 지능을’로, 카카오톡이 구축한 연결망에 개인화된 AI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카카오는 지난 15년간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사람과 일상,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해왔다”며 “그동안 만들어진 연결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이 AI 비서로… 주문·결제까지 연결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서비스는 AI 비서 ‘카나나 스페이스’다. 카카오톡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쓸면 캐릭터 ‘나이



13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6’ 현장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카카오

언’이 등장하고, 이용자는 음성이나 문자로 메시지 전송과 일정 관리, 웹 검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핵심은 AI의 역할이 단순한 답변에서 실제 행동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향후 주문과 선물, 예약, 송금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생수 주문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과거 구매 상품을 찾아주고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등 결제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여러 서비스를 직접 검색하고 실행하던 과정을 AI가 대신하는 셈이다. 카카오톡이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이용자의 일상적인 소비와 업무를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나나 스페이스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

한다.

PC 기반 AI 에이전트 제작 서비스 ‘칸바스’도 공개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설명하면 AI가 필요한 도구와 기능을 조합해 에이전트를 구성한다.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카카오는 이르면 연내 칸바스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톡에 개인용 AI 에이전트 팀을 연결하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부 개발자가 제작한 에이전트까지 수용해 AI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5000만 이용자 기반 수익화… 커머스가 첫 시험대

카카오가 AI 에이전트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기반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모델 성능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내세운 차별점은 일상 서비스와의 연결이다. 이미 카카오톡에 확보한 이용자와 선물하기, 쇼핑, 예약, 송금 등 생활 서비스를 AI와 결합하면 별도의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 이용과 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커머스는 AI 에이전트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다. 이용자의 요청이 실제 상품 구매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톡 내 거래 활성화와 기존 커머스 사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I 이용자 확대가 곧바로 매출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외부 서비스 연동, 실제 거래 전환율 등이 수익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AI 모델 ‘카나나’의 효율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은 온디바이스 AI로 수행하고 복잡한 작업은 대형 모델과 연결해 연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을 함께 이해하는 ‘카나나-o’와 실시간 음성 대화 기술 ‘카나나라이브’도 공개했다. 카나나-o는 향후 오픈소스로 공개해 외부 개발자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화가 경쟁력… 개인정보·실행 안전성은 과제

카카오의 AI 전략에서 또 다른 핵심은 개인화다. 이용자의 과거 경험과 선호를 AI가 이해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 실행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이용자의 기억과 경험을 의미 있는 맥락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모자이크’를 개발하고 있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에게 허용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개인별로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가 개인의 대화 맥락과 소비 이력을 활용하고 실제 거래까지 수행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확보는 넘어야 할 과제다.

AI가 이용자의 의도를 잘못 판단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주문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답변 오류와 달리 실제 금전 거래나 개인정보 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AI가 정보를 활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통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전트의 행동 계획과 실행 과정까지 검증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카카오의 AI 전략은 기술 경쟁을 넘어 이용자의 일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5000만 이용자 기반은 강력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AI 이용률과 거래 전환율, 운영 비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다.

정 대표는 “모두를 위한 연결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춰 일하는 지능을 더하겠다”며 “누구나 익숙한 일상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매출 줄고 이익 반토막인데… 방발기금, 10년째 제자리

방미통위 출범 이후 논의 중단

2015년 이후 부과율 1.5%대 유지
사업자 13곳, KCA 대상 소송 제기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싼 논의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경쟁 매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부과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1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부과율은 2015년 이후 줄곧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시장 경쟁 구도는 달라졌지만, 분담

금 징수 기준은 10년째 제자리다.

핵심 쟁점은 경쟁 매체 간 형평성이다.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지역민영방송이나 인터넷TV(IPTV)사업자보다 방발기금 부담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케이블TV의 매출 대비 분담금 부담률은 1.49%인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0.24%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방송사업 영업이익은 IPTV사업자(약 2조5300억원)와 달리 450억원에 그친다.

정부 지원을 둘러싼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민영방송 사업

자 9곳은 지난해 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약 2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현행법상 케이블TV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정책 동력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1.3%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후속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분담금 논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기획예산처가 정부가 징수하는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국내 통신 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기금 징수율보다 징수대상에 대한 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에도 방발기금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오는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매출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담금 부과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케이블TV 사업자 13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올해 8월 분담금 징수율이 기존 1.5%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 상황 변화 등 이유로 재검토는 가능하지만 행정 규칙상 법률 개정이 가능한 시점은 3년 후인 2028년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 U+, 고객 서비스서 AI 에이전트 기능 확대

LG유플러스가 고객 서비스에서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통합 고객 플랫폼 ‘유플러스 원’이 ‘엑서너블 AI 에이전트’ 단계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AI가 처리하는 기능으로, 고객 질문에 답하고 메뉴를 안내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개념이다.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통합 고객 플랫폼 ‘유플러스 원’에서 선보인다.

최근 회사는 대화형 AI 에이전트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차례로 요금납부 에이전트와 로밍 에이전트를 차례로 선보였다. 요금 납부 에이전트는 “이번 달 요금이 얼마야”, “미납 요금이 있어?” 등의 질문을 받고 청구금액과 미납 여부, 할인 내역을 안내한다. 나아가 요금 이 전월과 달라진 경우 로밍,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단말 할부금 등 주요 변동 항목을 분석해 원인을 설명한다.

로밍 에이전트 역시 여행 국가와 일정, 데이터 이용 성향을 대화로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 여행 팁과 현지 결제 정보, 가입 상품의 주요 혜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 후에는 로밍 이용요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에이전트 AI의 도입은 성과로도 나타났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밍 에이전트를 통해 상품을 추천받은 고객의 가입 전환율은 관련 앱 화면으로 연결하던 기존 AI 검색 방식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KT, 세미나이 결합 구독상품 8종 선택

내달 30일까지 출시 기념 행사

KT는 구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구독 상품 8종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상품 구성은 구글 생성형 AI 서비스 단독 상품 3종과 생활 밀착형 구독팩 5종이다.

단독 상품은 구글 AI 플러스(400GB·2TB)와 구글 AI 프로(5TB) 등이다. 고객들은 구글 제미나이 앱을 활용해 문서 작

성, 정보 검색, 번역, 학습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구성에 따라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제공된다.

구독팩 상품은 메가MGC커피, 스타벅스 등 생활 혜택을 생성형 AI와 결합했다.

특히 구글 AI 프로 5TB 구독 고객은 매 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이 무료다. 또 한디소·GS25·올리브영·카카오 이모티



KT 모델이 신규 출시하는 구글AI 구독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KT

콘 플러스·스노우 등 5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달 30일까지 출시 기념 행사도 연다.

/조민선 기자

현대차 주가 하락 어디까지… 외인 매도에 목표가 ‘줄하향’

6월 75만원 고점 대비 58% 떨어져
파업 여파에 도매판매 감소 예상
환율·원가 부담에 4분기도 불투명

현대자동차 주가가 최근 큰 폭의 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인공지능(AI) 등 신사업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본업인 자동차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며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주가가 약 6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다.

◆현대차 30만원대 무너지나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1.56% 내린 3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9만원대까지 밀리며 30만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주가가 장중 3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6월 1일 고점이었던 75만원 대비 58% 하락했다. 하반기에만 36.36%가량 하락했다.

올해 1월에 35%를 상회하던 현대차 외국인 자본율도 지난 8월부터 24%대에 형성됐으며, 현재는 23.90%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외국인 이탈



현대차 주가가 연중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원가·환율 부담으로 증권가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세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현대차를 11조3925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 업종 전반도 부진하다. 하반기 KRX 자동차지수는 20.50%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1.52%, 현대모비스는 30.30% 각각 하락했다.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는 많았지만, 상향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이달 들어서도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13곳 모두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낮췄다.

지난 12일에도 KB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신한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곳이 목표주가를 내렸다. KB증권은 기존 9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했으며, 유안타증권은 57만원에서 41만원까지 내려잡았다. 키움증권은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은 78만원에서 63만원, 현대차증권은 63만원에서 50만원, 유진투자증권은 7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업 둔화·노조 리스크 겹쳐

최근의 주가 부진은 자동차 사업 성장

내년 회계기준 변경… 영업익·공시체계 손질

금감원, 실제 데이터 검증 당부

수익·비용 5개 범주 분류

자체 성과지표 공시 확대

금감원은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실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나누는 것이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이익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손익의 개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뜻했지만, 새 기준에서는 투자·재무 등 다른 범

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의 손익으로 바뀐다. 기업은 새 분류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 원인과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

경영진이 대외 소통에 사용하는 자체 성과지표의 공시도 강화된다. 해당 지표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자체 성과 지표와 회계기준에 따른 실적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영업비용은 정보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격별·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통합·세분화 원칙이 강화되고 현금흐름표 표시도 변경된다.

기업의 준비 부담은 당해연도 재무제표

에 그치지 않는다.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실제 수치를 산출·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현행 표시·공시 방식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 이슈를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문서화하고 계정과목, 매핑체계, 공시양식과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작성도 주문했다. 재무제표 작성·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정책과 데이터, 시스템, 결산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료수집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전체 준비상태를 점검하라는 취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자산운용

메타·팔란티어 담은 ‘AI 에이전트’ ETF

삼성자산운용은 AI가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주목해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미국AI에이전트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KODEX 미국AI에이전트액티브는 AI 에이전트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미국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최근 출시한 '뮤즈' AI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메타, AI 에이전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팔란티어, AI 보안 분야의 강자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상위 3개 종목을 약 47%를 편입하도록 구성했다. /신하은 기자

세 둔화 우려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투자증권은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2조 37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2조 790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도매판매 감소와 더불어 원가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재료비가 사업계획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유사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실적 개선이 지연되고 로봇 사업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주가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 7~8월 노조 파업으로 약 5만 5000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공백은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고, 현대차의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약 92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원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 권역에서 부진했던 3분기 판매실적은 주로 7~8월에 걸쳐 진행된 국내 아산, 울산공장의 파업에 기인하며 아산공장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 공사에 따른 생산중단까지 겹치며 부진이 심화됐다"며 "특히 10년만의 전면 파업이 진행된 8월에는 국내공장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3분기 기준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1%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상반기에 인식했던 외화환매보증충당부채 재평가비용의 환입에 따른 환율비 감소가 매출 부진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라며 "4000억원대의 판매 보증비 환입 효과가 기대되며 해당 환입효과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현대차 3분기 손익 추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영업이익을 2조 5550억원으로 예상하면서 관세와 판매보증비 감소가 감익 요인을 거의 상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반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부담도 존재한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가정 변화로만 약 3000억원의 영업이익 축소 영향이 발생했으며,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 효과도 작용했다"면서 "현재 환율인 1350원대가 유지될 경우, 3분기 평균 환율 1418원 대비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4분기 실적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생산 차질이 해소되더라도 환율과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 실적 개선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단기 옵션에 몰린 美 개미, 하루 거래 935조

거래 절반 이상 만기 2주 미만

미국 증시에서 짧은 기간의 주가 움직임에 베팅하는 옵션 거래가 달아오르고 있다. 개별 주식 옵션의 하루 명목 거래규모는 밌 주식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다. 금리 인상과 고유가, 중동 전쟁 등 불안 요인에도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AI) 성장 기대를 앞세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옵션 전문 투자운용사 카릭 레인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개별 주식 옵션의 명목 거래규모가 하루 약 7000억달러, 약 935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며 일부 종목이 급등했던 2021년 수준이다.

명목 거래규모는 옵션을 사고파는 데 실제 지불한 돈이 아니라, 거래한 옵션이 대상으로 삼는 주식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하루 935조원의 투자금이 옵션 시장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니다.

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주식을 살 권리는 '콜 옵션', 팔 권리는 '풋 옵션'이라고 한다.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주가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옵션 매수에 쓴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주가 상승에 베팅할 때 활용하는 콜옵션의 가격도 2021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옵션 가격은 주가의 방향뿐 아니라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눈에 띄는 것은 짧은 만기의 계약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카릭 레인의 존 미шал 파트너는 개별 주식 옵션 거래량



미국 증권거래소 전경.

/뉴시스·AP

의 절반 이상이 만기까지 2주도 남지 않은 계약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단기 옵션은 주가의 방향과 함께 움직이는 시점도 맞아야 한다. 콜옵션을 샀더라도 주가가 만기 전에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이미 권리가 만료됐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주가가 유리하게 움직일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옵션 가치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도 강해졌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에서 향후 6개월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10월 둘째 주 40.3%로 집계됐다. 7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WSJ은 개인들이 금리 인상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 중동 전쟁 등의 악재보다 기업의 견조한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불안에도 주식을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로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할 때도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후 AI 관련 종목과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허정윤 기자

3분기 채권·CD 발행 178조3000억

예탁원, 직전 분기보다 총액 1.9% ↓

올해 3분기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17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올해 3분기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한 기업 등의 채권·CD 등록발행 규모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160조 5000억원보다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올해 2분기 181조 7000억원보다는 1.9% 줄었다.

채권 등록발행 규모는 16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8% 감소했다. CD는 1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16.8% 줄었으나 직전 분기보다는 13.3% 늘었다.

종류별로는 금융회사채와 특수목적법인(SPC)채를 포함한 회사채가 81조 5000억원, 특수채가 76조 9000억원이었다. 이어 국민주택채 3조 7000억원, 지방공사채 3조 1000억원, 지방채 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수채가 43.1%로 가장 컸다. 금융회사채는 36.1%로 두 종류의 합산 비중이 79.2%에 달했다. CD는 6.7%, 일반회사채는 6.6%, SPC채는 3.0%였다. 국민주택채와 지방공사채, 지방채의 비중은 각각 2.1%, 1.7%, 0.7%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순찰로봇·휴머노이드 투입 규제 개선… M.AX 확산 가속

(제조 인공지능 전환)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의’
로봇 보행자 도로 순찰 실증특례 승인
휴머노이드 20대, 고난도 공정 실증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과 일상에 막힘없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다. 4족보행 로봇의 도심 순찰과 제조 현장 내 휴머노이드 투입이 실증 특례를 통해 본격화되는 한편, 가짜 AI 광고를 막기 위한 표준 제정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AI·로봇·에너지 분야의 규제특례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도심 누비는 4족보행 로봇·의료 AI 보안 플랫폼 첫선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선 ㈜마음AI가 신청한 자율주행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 도로 순찰 실증특례를 국내 최초로 승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족보행 순찰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산업부

했다.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운행될 이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발생 시 대피 방송을 송출하고 관제시스템에 현장 영상을 전송한다. 기존 바퀴형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커버해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센즈랩과 분당차병원온 병원 내·

외부 데이터를 학습해 비정상적인 정보 유출 흐름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AI 보안 플랫폼’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감한 의료정보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격 투입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는 이

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거 투입된다. ㈜로보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달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을 실증한다.

현행 규칙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동형 로봇의 현장 배치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 길이 열리면서 M.AX 가속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AI 워싱’ 방지 표준 제정 및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산업부는 이날 기업 건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단순 자동제어 기능에 불과하면서 AI 가전인 것처럼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으로 인한 소비자 혼

란을 막기 위해 연내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표준 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제조 현장 AI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2028년 초까지 마련해 보안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건여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 속도를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메가프로젝트·특별법 전담국 출범

산업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생태계 지원
인도통상협력과, 韓-인도 협력 전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전담 국장급 조직이 신설되고, 한-인도 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위한 인도 통상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법정 사무와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단행됐다.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어, 초격차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한층 더 보강한 것이다.

신설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국

장급 단장 아래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편제된다. 앞으로 ▲반도체 정책 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 사무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증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연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정상 회담을 통해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

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통상 기반이 대폭 확대된 상태다.

새로 출범하는 인도통상협력과는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로서 교류를 총괄한다. 인도와의 산업·투자 협력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장 기업 애로 해소와 정부 간 채널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공원 야생동물 분석시간, AI로 단축

국립공원공단 ‘반달렌즈 AI’ 적용 계획
10만건 당 208일 → 8시간으로 단축

그동안 연구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던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에 대한 동정(종 판별) 작업 시간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업무 인공지능(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야생동물에 대한 인공지능 자동 동정 시스템인 ‘반달렌즈 AI’를 최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정’이란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 및 종(species)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전국 국립공원 내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포유류 17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별한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 오던 공원자원 영상 및 이미지 분석 업무를 완벽히 자동화한 것이다. 판별 대상이 되는 17종에는 반달가슴곰, 여

우, 산양을 비롯해 수달, 담비, 삿, 하늘다람쥐, 고라니, 노루, 너구리, 멧돼지, 오소리, 족제비, 청설모, 다람쥐, 개, 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에는 1300여대의 무인센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 평균 약 470만 건에 달하는 영상이 수집되고 있다. 이 영상을 기존 인력으로 분석할 경우 10만 건당 무려 208일이 소요되지만 ‘반달렌즈 AI’를 거치면 분석 시간이 무려 99% 단축돼 10만 건당 8시간에 불과해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반달렌즈 AI) 도입으로 국립공원 자연자원 및 서식지 관리의 업무자동화에 한층 더 다가섰다”며 “높아진 업무 효율성을 반영해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해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기술인재 장학생’ 3기 선발

1·2기생, SK하이닉스·테슬라 등 취업
1인당 年 1800만원, 교육·멘토 등 지원

한국폴리텍대가 3기 기술인재 장학생을 선발했다. 앞선 1기의 경우 SK하이닉스·현대차 등에 채용됐고 2기의 일부는 재학 중 테슬라 등에 취업을 확인받았다.

폴리텍대는 ‘만우 조흥제 스칼라십’ 제3기 기술인재 장학생 24명을 선발하고, 지난달부터 1년간 장학금 지원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효성그룹 및 한국타이어를 일군 창업 1세대 故만우 조흥제 회장의 ‘기술중심·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잇기 위해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2024년 출범한 장학사업이다. 학력이 아닌 현장 기술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민간 재단 주도의 기술인재 장학사업이다. 폴리텍대 재학생



기술인재 장학생 워크숍.

/한국폴리텍대

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1인당 지원 규모는 연 1800만원으로 생활비 장학금 연 600만원과 기술개발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월 1회 리더십 교육과 기술선진국 해외연수, 모의면접·현직자 진로 멘토링 등을 1년간 제공한다. 수료 후에도 졸업 장학생 네트워킹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기 장학생은 학업성과와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형편 때문에 기술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장학사업의 취지를 선발 기준에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선발된 24명은 반도체·AI·로봇 등 신기술 분야와 전기·기계 산업설비 등 뿌리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뤘다. 또 법학·사회복지·연극영화 등에서 기술 분야로 진로를 바꾼 장학생도 9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광해광업공단, ‘AI 윤리 준수’ 마크 획득

AI윤리 현장 제정 등 책임감 강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 윤리 준수기관’ 확인 마크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 마크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 그리고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도입돼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공단은 앞서 지난 6월 ‘AI윤리 현장’을 제정했다. 현장에는 ▲공공성과자원안보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형평성과 상생 ▲투명성과 책임성 ▲기술 견고성과 거버넌스 등 5대 원칙과 10개 조항이 명문화됐다. 이를 통해 공단은 AI 활용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안전성, 공정성, 책임

성 등 핵심 윤리가치를 실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특강, 온라인 AI 윤리교육과 생성형 AI 윤리 자가진단을 실시해 AI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과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공단은 이번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향후 AI 활용 기준과 절차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공공 부문에 걸맞은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영식 사장은 “AI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 이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AI 활용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매콤달콤의 최적 밸런스

리아 불고기 세트

더블 불고기 패티로 든든하게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

NEW

NEW

감자채전 토핑으로 바삭하게

리아 불고기 레드

LOTTERIA™

충남의 미래 100년 밑그림… AI 수도·제2수도권 도약 선언

박수현 도지사 취임 100일

도민 소통체계 개편 등 주요 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운영방안 제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시간을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진 '양종옥전(良種沃田)'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AI 수도'이자 '제2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충남의 목은 과제를 진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하는 충남'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만든 사자성어 '양종옥전'을 제시하며 "튼실한 씨앗을 고르고 그 씨앗을 뿌릴 비옥한 밭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도민 소통 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혁신,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취임 후 '통하는 도지사실 추진 계획'을 결재하고, 시군 방문 프로그램인 '충남통행'을 통해 도민 건의사항의 처리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주요 도정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구축과 제2수도권 도약 등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과정과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3년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박 지사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파스 착공 시기를 한 달 앞당겼으며, 5년간 중단됐던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공사도 내년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지역 67조 원 규모 투자와 당진 1조 2405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도내 8개 시군 27개 기업의 1조 5303억 원 투자유치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전력·수력·인력의 '3력 혁신'과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3대 균형'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복지·의료·

교육과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도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초광역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감을 낸다.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충남혁신 도시 공공기관 50개 유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대한민국 AI 수도와 함께 '힐링 충남'을 제시했다. 서해안과 산림, 백제 역사문화, 온천과 종교유산 등 지역 자산을 연계해 수도권 2500만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충남은 제2수도권으로 도약할 기회의 땅이자 바쁜 일상에 지친 수도권 시민을 안아줄 안식처"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여유와 쉼을 선물하는 힐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은 임기에 임하는 각오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제시하며 "민선 9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충남의 100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강림중공업과 860억 투자 협약

창원시는 12일 시청에서 강림중공업과 86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신규 고용 150명 창출 계획도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운 창원시장, 신한성 강림중공업 부사장이 참석해 투자 이행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림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새로 짓고 선박용 보일러와 신규 개발 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자가 늘어나는 수주 물량과 신규 제품 양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무안산 군고구마 페이스트

스타벅스 가을 라떼로 재탄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군고구마 가공식품이 카페 음료의 재료로써 사용되어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무안군은 무안군 융복합센터에서 가공한 무안 군고구마 페이스트가 스타벅스 가을 시즌 음료 '카스텔라 고구마 라떼'의 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에는 올 상반기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원료로 무안군 융복합센터에서 가공한 유기농 100% 군고구마 페이스트가 사용됐다. 해당 페이스트는 대형 식품기업에 납품된 뒤 스타벅스 시즌 음료 원료로 공급돼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무안(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12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안동 특수관리 의약품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안동에 의약품 생산거점 구축

2030년까지 총 1750억 투입

안동시-네오켄바이오 등과 협약

경북도가 약 1750억원을 투입해 안동에 헴프 재배부터 원료·원제의약품 생산, 품질·안전관리까지 연결하는 특수관리 의약품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12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안동시, 네오켄바이오,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생산시설은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다. 원료 의약품 시설은 유럽연합 의약품 제조·품질

질관리기준(EU-GMP)에 맞춰 구축하고 원제의약품 시설에는 위탁개발생산(CDMO) 라인을 설치한다. 재배·이동·보관·제조 과정에는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한 통합관제와 이력관리 경험을 적용한다.

안동은 2024년 6월 포항과 함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됐다. 경북도는 2021~2024년 약 468억 원을 들여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실증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CBG·CBC·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로 실증 범위를 확대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영양군, 숲 보전 연계 생태관광 모델 구축

경북생명의숲과 업무협약 체결

영양군이 지역의 산림·생태자원을 관광과 환경교육에 활용하고 숲 보전·복원까지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생태자원과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숲 여행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영양군은 13일 군청에서 (사)경북생명의숲(상임대표 김민정)과 산림·생태관광 활성화 및 숲 보전·복원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협력의 중심에는 영양자작나무숲과 국제범하늘보호공원 등 지역의 대표 생태자원이 있다. 영양군은 경북생명의숲이 보유한 전문성을 접목해 생태교육과 숲 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숲 보호와 복원 활동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양 기관은 산림생태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숲 여행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청송군, 캐릭터 이모티콘으로 축제 홍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청송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청송사과와 관광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며 전국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새로운 홍보에 나선다. 군은 제20회 청송사과축제를 앞두고 14일부터 지역 대표 캐릭터인 '청이와 송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선착순 7만 5000명에게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모티콘은 '지금 청송! 청송 사과축제'를 주제로 제작됐다. 청송사과의 친근한 이미지를 일상 속 소통수단에 접목해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송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주왕산과 청송정원 등을 캐릭터와 함께 담아 단순



카카오톡 '청이와 송이' 이모티콘.

한 축제 홍보를 넘어 청송의 자연경관과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모티콘은 일상 대화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구성됐으며, 카카오톡에서 '청송군청' 채널을 추가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포 인원은 선착순 7만 5000명이며, 다운로드한 날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에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 개소

금융에 블록체인·AI 기술 접목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술을 금융에 접목해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시설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문을 연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II) 22층에서 '부산블록체인·AI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테이프 절단, 경과 및 발전전략 보고, 인사발, 축사, 기념촬영, 현장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II) 23층에

전용면적 229.54㎡ 규모로 조성된 연구센터는 현장 맞춤형 전문 교육, 기업 주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자문 및 개념증명 등을 수행한다. 특히 현금융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굴해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석·박사과정) 운영을 병행하고, 디지털금융 분야 실무형 교육과 지·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재수 시장은 "블록체인과 AI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금융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며 "연구센터가 대학의 역량과 기업의 수요를 잇는 핵심적인 디지털금융 기술 양력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화성특례시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화성특례시가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포럼'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운영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위원회로 전환한 것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신규 정책 발굴, 주요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 등을 맡는다. /화성(경기)=김예원 기자 ywon@

남양주시

왕숙산단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남양주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7회 한국전자전(KES 2026)에 참가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미래산업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전은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종합 전시회로, 올해는 약 500개 기업이 참여해 1, 10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요 투자 강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유통업계, ‘로코노미’ 바람… 이색제품 출시·상생활동 활발

〈로컬·이코노미 합성어〉

쿠팡 품평회 프로그램 전국 확대
CU 지역축제 메뉴 상품화 추진
GS리테일 전통주 소비 활성화
롯데온 전통시장·상점이 판로 개척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특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Local+Economy)’가 유통업계의 주요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축제와 맛집에서 발굴한 메뉴를 전국 단위 상품으로 출시하는가 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활동도 활발하다.

1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이 지역 특산물과 로컬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로코노미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문화와 특산물을 상품과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소비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로코노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편의점 업체다. CU는 경북 김천시와 3년째 협력



지난달 21일 제주 한라컨벤션에 열린 ‘2026 제주 K-로컬스타를 만나다’ 행사에서 쿠팡 브랜드 매니저(BM)가 참가기업 관계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

하며 지역 축제에서 발굴한 메뉴를 전국 단위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CU가 오는 27일 출시하는 ‘중화식 고추잡채 김밥’은 김천김밥축제 경연대회인 ‘김밥쿡킹대회’ 3회차 우승작을 상품화한 것이다. CU는 2024년부터 김천시와 협력해 김밥쿡킹대회 우승작을 상품으로 개발해왔다. CU는 이번 신제품 출시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역대 우승작을 순차적으로 재출시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춘천과 안동, 대구 등 전국 미식 지역의 대표 메뉴를 편의점 간편식으로 구현한 ‘세븐셀렉트 지역

미식 냉장안주’를 선보였다. ‘춘천식당갈비볶음’은 춘천 닭갈비 맛집을 모티브로 했으며, ‘안동식찜닭’은 전통 간장 소스와 청양고추를 활용했다. ‘대구식불마창’은 직화 공정으로 불맛을 살리고 마늘과 떡을 더했다.

GS리테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통주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양조장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와 전국 GS25, GS더프레스 매장을 활용해 지역 전통주의 판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CU ‘중화식 고추잡채 김밥’ /BGF리테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제주 한라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제주 K-로컬스타를 만나다’ 행사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품평회와 입점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굴과 흑돼지, 수산물, 알로에 등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47개 기업이 참여했다. 쿠팡은 제주 품평회를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품평회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쿠팡은 중소기업인 상생 전문관 ‘착한상점’을 통해 상시 중소기업과 지방 농어촌 온라인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며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우수 중소기업인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롯데온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힘을 신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온은 지난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2021년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젝트인 ‘ONDREAM(온드림)’을 운영하며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입점 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온누리상생스토어’를 선보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본격화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쇼핑, 대기업 최초 ‘주주 우대 제도’ 도입

내달부터 ‘엘, 아너스 클럽’ 시행
적립·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

롯데쇼핑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주주 우대 제도인 ‘엘,아너스 클럽(L.HONORS CLUB)’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에서 나아가 해외 주주 우대 제도를 참고해 주주환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주 우대 제도는 현재 국내 일부 중소기업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돼 있다. 반면 일본은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편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정착해 있다. 롯데쇼핑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롯데쇼핑 주주 우대 제도의 공식 명칭인 ‘엘,아너스 클럽(L.HONORS CLUB)

LOTTE SHOPPING
L.HONORS
CLUB

‘엘, 아너스 클럽’ 로고 /롯데쇼핑

B)’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주주’를 의미한다.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엘포인트를 기반으로 포인트 적립과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주주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엘,아너스 클럽’은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1주 이상 보유한 전체 주주에게는 최초 1회 신규 가입 시 백화점과 마트·슈퍼, e커머스 등에서 한도 내 사용할 수 있는 10~2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아울러 구매 실적(100만·200만·300만원)에 따라 1~2·3%를 적립해 주는 구매금액 연동형 포인트 혜

택도 함께 제공한다.

제도 시행일인 2026년 11월 1일에는 2026년 9월 말 기준 주주에게 첫 혜택이 제공된다. 이후 2026년 말 기준 주주는 2027년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는 등 3개월 주기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1000주 이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고객·장기 주주에게는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주주들은 백화점 라운지 및 발레파킹 주차 이용권을 비롯해 마트·슈퍼와 e커머스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및 무료 배송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세 혜택은 10월 15일부터 엘포인트 앱 내 사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주 우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주와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웰푸드, 롯데·가나 등 브랜드 굿즈 확대

아이디어스 2차 협업… 향수 등 출시

롯데웰푸드가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와 협업해 과자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를 추가로 선보인다. 지난 5월 첫 협업 제품이 9월까지 약 8200개 판매되면서 협업 품목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늘렸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가나·쌍서요·찰떡파이·롯데·칙촉 등 주요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품은 빼빼로 책갈피와 카드지갑, 가나 키링과 이어폰 줄감개, 쌍서요 향수·독서링·도자기 잔, 찰떡파이 슬라임, 롯데 피크닉 보자기·거울 키링 등이다. 오는 27일에는 칙촉 에어팟 케이스와 쌍서요 머틀러, 찰떡파이 클리커를 추가로 출시한다.

이번 협업은 과자 브랜드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생활용품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웰푸드는 아이디어스 입점 창작



롯데웰푸드가 아이디어스와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을 전개한다. /롯데웰푸드

자들과 협업해 식품 외 굿즈로 브랜드 활용 범위를 넓혔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지난 첫 번째 협업에서 롯데웰푸드의 친숙한 브랜드가 창작자들의 개성을 만나 색다른 굿즈로 재탄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더욱 다양한 브랜드와 아이디어를 통해 소비자들 이 롯데웰푸드 브랜드를 일상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세븐일레븐 인기 젤리·비스킷 출시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일본 현지 인기 젤리와 비스킷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오는 15일 일본 현지 인기 간식인 ‘노벨소르베구미’를 선보인다. 노벨소르베구미는 차가운 샤베트를 연상시키는 백도 맛 젤리로,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사각사각하게 부서지는 식감이 특징이다.

지난해 가을 한정 상품으로 선보였던 ‘컨트리맘꿀고구마맛’도 지난 8일 재출시했다. 제품은 고구마 페이스트와 화이트 초콜릿 칩을 넣어 진한 고구마 풍미와 부드러운 단맛을 살렸다. /김서현 기자

에이블리, 다이어리 얼리버드 프로모션

400개 이상 다이어리 상품 판매

에이블리는 오는 18일까지 ‘2027 다이어리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열고, 총 400여 개 다이어리 상품과 주요 문구 브랜드사와 함께 기획한 에이블리 단독 구성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아이코닉, 인디고 디자인문구, 모트모트, 비온뒤(BeonD), 아트박스, 워너디스디자인을 비롯한 총 45개 입점 브랜드사가 참여해 400개 이상의 다이어리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 행사에서는 에이블리가 8개 주요 문구 브랜드사와 협업해 기획한 총 45가

지의 에이블리 단독 구성 세트도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아이코닉과는 에이블리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겨낸다 다이어리’의 2027년 버전에 탁상달력과 점착 메모지를 더한 단독 세트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인디고디자인문구’의 ‘2027 프리즘 레더 A6 포켓 다이어리’, ‘비온뒤(BeonD)’의 ‘2027 오프닝 시퀀스 다이어리’ 등을 선보인다.

이번 ‘2027 다이어리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맞아 이용자에게는 다이어리를 비롯한 문구 전 상품에 적용 가능한 15%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소통학회 주최, NS홈쇼핑 후원

NS홈쇼핑이 후원하고 한국소통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가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대회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소통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소통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NS홈쇼핑과 한국소통학회가 지난 9월 체결한 방승발전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양 기관은 대학생들의 비판적·논리적 사고와 소통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추진했다.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2~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학 연합팀도 참가할 수 있다.

대상 1팀에는 한국소통학회장과 상금 150만원, 금상 1팀에는 NS홈쇼핑 대표이사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은상 2팀에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동상 4팀, 특별상 8팀과 우수 토론자 1명을 선정하는 ‘Best Speaker’상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서현 기자

“변이 바이러스 잡아라”… K-바이오, 범용 치료제 ‘총력전’

현대바이오, ‘제프티’ 치료제 확대
GC녹십자, 프랑스 오시백스와 맞손
SK바사, 범용 코로나 백신 임상 추진

최근 국내 바이오 업계는 바이러스 중 류나 변이에 국한되지 않고 작용하는 범용 치료제에 주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매년 변종을 거듭하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기존 감염병 대응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다. 바이러스의 빠른 변이 속도는 기존 단일 표적 치료제와 계절성 백신의 예방 효과를 반감시키고 내성 문제를 야기해 왔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무기화합 기반 약물전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한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발 전략을 공유했다.

제프티는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이다. 코로나19 임상 3상에서 바이러스 감소 수치, 빠른 증상 개선 등을 입증한 데 이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살인진드기병), 뎅기



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장.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열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서 적응증 확장 연구가 진행 중이다.

원천기술 개발자인 최진호 단국대학교와 석좌교수는 “세균 감염 질환에는 페니실린이라는 강력한 범용 무기가 존재하지만 바이러스 영역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범용 치료제가 부재하다”며 개발 배경을 짚었다.

이어 최진호 교수는 “바이러스가 의존하는 숙주를 표적하는 기존 치료법은 약효를 높이기 위해 투여량을 올리면서 간독성 등 부작용에 부딪혔으나, 30여 건의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7가지 검증 조건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러스 억제력이 뛰어나면서도 물에 녹지 않고 몸에 흡수되지 않아 약으로 쓰지 못했던 기존 구충제 성분 ‘니클로사마이드’의 한계를 독자적인 나노 전달체 및 코팅 기술을 활용해 체내 흡수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상 현장의 데이터도 확보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는 “살인진드기병은 국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하고 의료진 2차 감염 위험도 높지만 국내 승인된 치료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

포 실험 결과, 제프티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낮은 농도에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추진과 함께 베트남과 감염병 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47가지 혈청형을 가져 변이가 심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뎅기열 풍토병으로 매년 막대한 보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바이오는 베트남 보건당국 및 국립 열대병원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뎅기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초반 모멘텀으로 삼아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감염병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HLB랩은 독자적인 펩타이드 플랫폼 ‘AGM-380’을 통해 비임상 단계에서 광범위한 RNA 바이러스 정조준에 나섰다.

AGM-380은 바이러스 감염 세포의 세포막 및 세포 내 인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작용 기전을 가졌다. 인플루엔자는 물론 사포,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체에 대응하는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미 비임상 효능 및 기초 독성을 마치고 호주, 일본, 미국 등 글로벌 특허 등록을 완료한 HLB랩은 오는 2027년 약 747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글로벌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에서 차세대 핵심 주자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범용화 바람은 대형 제약사들의 차세대 예방 백신 플랫폼 전략과도 맞아 있다.

GC녹십자는 매년 유행하는 독감 변이주에 맞춰 백신을 재제조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프랑스 오시백스와 손잡고 차세대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백신에 바이러스의 변하지 않는 내부 단백질을 표적하는 기술을 결합해, 변이 독감과 신종 독감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막아내는 이중 면역 기전의 범용 백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글로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TI)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베코바이러스(코로나 계열) 전체를 정조준하는 범용 백신 파이프라인 ‘GBP511’ 글로벌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옴리클로’ 임상적 가치 알린다

내일 열리는 ‘세계알레르기학회’ 참가
퍼스트무버 경쟁력 앞세워 日 공략

셀트리온은 오는 15~18일 일본 교토 국제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알레르기학회(WAC2026)에 참가해 옴리클로 제품 경쟁력과 임상적 근거를 소개하고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WAC는 세계 알레르기 기구(WAO)가 주최하는 글로벌 알레르기·면역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일본알레르기학회(JSA) 및 아시아태평양 소아알레르기·호흡기·면역학회(APAPARI)가 공동 진행하는 합동 학술대회 ‘JSA/WAO/APAPARI Joint Congress 2026’으로 행사가 마련된 만큼, 전 세계 알레르기·호흡기·면역학 분야 의료 전문가 약 7000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전사회장에 마련한 기업 부스를 통해 일본 출시를 앞둔 세계 최초 옴리클로 바이오퍼미컬인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와 경쟁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글로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역량을 함께 홍보해 제품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옴리클로는 지난 3월 일본에서 기관지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CSU),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적응증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약가 기준 등재를 거쳐 퍼스트무버 바이오퍼미컬로 출시를 준비중인 만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현지 의료진의 높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학회이튿날인 16일에는 바이오퍼미컬을 통한 치료 선택지 확대: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400여 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일

본 알레르기 진료 현장에서의 옴리클로 활용 경험과 바이오퍼미컬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일본 알레르기 분야 권위자인 오쿠보 기미히로 교수(일본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바이오퍼미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 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합동 학술대회는 전 세계 알레르기 분야 석학과 의료진들에게 옴리클로의 우수한 치료 효능과 퍼스트무버로서의 경쟁력을 인지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일본에서 랩시마, 허주마 등이 구축한 견고한 신뢰와 직판 인프라를 바탕으로 옴리클로 역시 일본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에서 우위적 입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C녹십자, 헌터라제 안전성 평가 고도화

IgE 항체 정밀 분석법 개발

GC녹십자가 희귀질환 치료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원인을 극미량 수준까지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약물 평가를 고도화하고 임상 개발 경쟁력을 높였다.

GC녹십자는 자사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법은 고감도 효소면역분석법을 기반으로 환자 혈액 내에서 헌터라제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IgE 항체만을 선별해 미량이라도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 헌터라제 투여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약물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해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헌터증후군은 체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돼 발생한다. 이 부족한 효소를 정제적으로 보충하는 효소대체요법이 주요 치료법이다.

다만 효소대체요법과 같은 단백질 치료제는 환자 면역 체계가 치료제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 항아물 항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 중 IgE 항체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

/이청하 기자

비트, 효소 함량 10배 ‘몬스터 파워젤’ 출시

라이온코리아가 세탁제제 브랜드 비트에서 고급 액체세제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라이온코리아는 효소 함량을 최대 10배 적용한 ‘몬스터 파워젤’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액체 제형이며 기존 액체 제품 대비 효소 함량을 10배 강화해 한층 더 뛰어난 세척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세탁 고민에 맞춰 ‘10X 삶음파워’와 ‘10X 냄비케어’ 두 가지로 구성했다.

10X 삶음파워는 지우기 힘든 찌든때와 향변 얼룩, 초미세 오염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경북공서 ‘전통문화의 멋’ 전파

‘경북공 한복 연향’ 참여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와 전통 문화의 조화가 가을밤 경북공을 물들였다.

설화수는 지난 9~10일 열린 2026 가을 궁중문화축전 ‘경북공 한복 연향’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공 한복 연향’은 한복을 입고 고궁의 야경과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화당 1800명씩 총 3600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이 중 약 800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함께해 한국 전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설화수는 경희루 인근에서 브랜드 부스



‘설화수X경북공’

/아모레퍼시픽

를 꾸미고 방문객들에게 호박색 초롱을 제공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은은한 분위기를 갖춘 초롱을 든 관람객들이 고궁 곳곳을 거니는 풍경은 경북공의 밤 운치와 어우러지며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했다.

/이청하 기자

6조 건기식 시장, ‘간편·복합화’가 대세

성분 더하고 섭취 편의성 높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하면서, 여러 기능성과 원료를 하나에 담고 섭취 편의성까지 높은 ‘멀티 솔루션’ 제품을 앞세운 웰니스 기업들의 이너케어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업들은 단순 개별 원료 중심에서 벗어나 면역·항산화·피부관절 등 복합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일상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형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라엘의 헬스케어 브랜드 ‘라엘 밸런스’는 질장 건강에 더해 면역과 항산화 기능까지 강화한 여성 유산균 제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 출시한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데 이어, 기능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지난 3월 출시한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액티브’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형 다변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바람은 주요 유통·제약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유한양행은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콘드로이틴황산염 1200mg에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추출물, 생선 콜라겐 등 다양한 부원료를 배합한 ‘유한콘드로이틴1200’을 선보였다.

정제와 액상을 결합해 한 병에 담아낸 이중 제형 제품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출시한 ‘슈퍼콜라겐 PDRN’은 정제(연어 유래 PDRN, 히알루론산, 글루타치온)와 액상(저분자 콜라겐, 비타민C)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제형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현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빙그레, 논산시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

빙그레가 충남 논산시와 협력해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빙그레는 전날 논산시, 논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론볼 선수 6명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빙그레



소공연, 네이버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한제과협회, 네이버,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대한제과협회, 네이버, Npay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기보, 유암코와 구조조정기업 재도약 지원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구조조정기업들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보는 유암코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유암코 본사에서 '구조조정기업 재도약을 위한 기술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유암코는 구조조정 검토기업과 채권인수 대상기업 가운데 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평가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

/기술보증기금



여경협, 건설자원업계와 여성기업 성장 협력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건설자원 산업 분야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본회에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여성기업 성장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성기업의 경영역량을 높이고 업종 간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인자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지연 △해운정책과장 이민석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김수정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시설기획과장 김훈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산업정책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김혜주

부음 ▲백분수씨 별세, 나동연(경남 양산시 장)씨 모친상=12일,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73 양산농협 양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5일, 장지 울산하늘공원. 055-366-4440.

삼성전기·LG이노텍, 전자·IT 기술혁신 공로 정부 포상

첨단부품 경쟁력·생산혁신 인정
김위헌 상무, MLCC 국산화 산업포장
조지태 전무, AI 혁신 은탑산업훈장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임원들이 국내 전자·IT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13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기 김위헌 MLCC 제조기술팀장(상무)과 LG이노텍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전자·IT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각각 산업포장과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전자·IT의 날은 지난 2005년 전자·IT 산업 수출 1000억달러 돌파를 기념해 제정됐으며,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김위헌 상무는 26년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신



김위헌
삼성전기 MLCC제조기술팀장

제품 개발을 주도하며 IT·전장용 고부가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0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김 상무는 2009년 세계 최초로 0603 크기(가로 0.6mm, 세로 0.3mm)의 1μF(마이크로패럿) MLCC를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같은 크기의 2.2μF 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후 전장용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 개발을 이끌며 2022년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

과 2023년 업계 최초로 전장용 고용량 MLCC를 선보였다.

2024년부터는 MLCC 제조기술팀장을 맡아 AI 서버용 고부가 MLCC 개발과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조지태 LG이노텍 전무는 광학솔루션과 반도체 기반 사업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AI 전환(AI)을 통한 제조혁신과 핵심 장비 국

산화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4년 LG이노텍에 입사한 조 전무는 베트남 생산법인장과 광학솔루션 생산담당, 광학솔루션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카메라 모듈 사업의 생산혁신을 주도했다. 특히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자동 품질 점검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LG이노텍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글로벌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을 맡아 반도체 기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투자를 추진 중이며, 향후 5년 내 패키지솔루션 사업을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골든블루, '노마드' 현장 마케팅 강화

마포 이어 영등포서 게릴라 캠페인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노마드의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를 초청한 현장 행사와 바텐더 대상 교육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바빔바에서 노마드 아웃랜드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조아오 비센테와 함께 게스트 바텐딩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 주요 바를 순회하는 오프라인 프로젝트 '게릴라 노마드 캠페인'의 일환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등포구에서 두 번째 캠페인을 열었다.

행사에서 조아오 비센테는 노마드의 숙성 과정과 브랜드를 소개하고 시그니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앰버서더를 앞세운 두 번째 '게릴라 노마드 캠페인'을 성료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처 칵테일 2종을 선보였다. 행사 장소인 바빔바도 노마드 위스키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칵테일 2종을 공개했다.

본 행사에 앞서 영등포구 일대 주요 업장 바텐더 2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웅제약, 폐PC 재활용으로 탄소 저감

교체 대상 업무용 PC 150대 기부

대웅제약이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 저감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1석 2조' 효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대웅제약은 교체 주기를 맞은 업무용 PC 150대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일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된 PC는 전문가의 재생 프로세스를 거쳐 디지털 소외계층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PC 1대 재사용 시 약 232kg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번에 대웅제약이 기부한 150대가 재활용되면 탄소저감 효과는 총 34.8톤에 달한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그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왔다. 올해 3월 '세이프 더 헬스 인 제주' 행사를 통해 제주 해녀 3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서울시 '손닥터 9988'과 협력해 당초 전 단계 시민 1000명의 혈당 관리를 돕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유원, 수험생 위한 '찰떡 합격' 기획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동반성장몰에서 2027 수능에 맞춰 고3 수험생들의 합격을 지원하는 '찰떡같이 붙자! 합격 기원 기획전'을 개최한다.

13일 한유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는 찹쌀떡, 초콜릿, 곡물바 등 수험생을 위한 간식

과 함께 보은 텃블러, 립밤, 핸드크림 등 컨디션 케어 용품 등 80여 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동안 해당 제품은 특별 할인가로 판매되며 5% 추가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 우주태양광 영화로 만든다

시네마바이브랜드 첫 파트너 참여
우주태양광 소재 영화 3편 선정

한화그룹이 우주태양광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참여해 국내외 대중과의 접점을 넓힌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사업과 기술에 담긴 가치를 영화 속 이야기로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영화 콘텐츠 개발·제작 플랫폼 '시네마바이브랜드(Cinema by Brand)'의 첫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네마바이브랜드는 이노션과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ACFM)이 공동 기획한 플랫폼으로, 기업과 영화 창작자를 연결해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소재로 작품을 개발·제작한다.

한화는 우주태양광이 널리 활용되는 미래의 우주를 작품의 배경으로 제시

했다.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B2B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친숙한 영화 콘텐츠를 통해 한화가 사업과 기술로 만들어가려는 미래를 대중에게 알리려는 취지다.

우주태양광을 소재로 제작할 영화는 2017년 도쿄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에드먼드 여(Edmund Yeo) 감독의 'Solar Poet', 홍의정 감독의 '달노을', 이진호 감독의 'The New Mission' 등 3편이다. ACFM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KG) 등 영화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7년 중 제작해 국내외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 작품은 우주를 배경으로 인간의 기억과 감정, 생명, 미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심사위원들은 영화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화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김정아 이노션 대표(왼쪽 두 번째), 박지영 한화커뮤니케이션사업위원회 부사장(왼쪽 세 번째) 등이 12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특별 세션에서 대담을 나누는 모습.

/한화

GS칼텍스 '꾸스', 런던광고제 2관왕

탄소포집 기술 놀이로 풀어내

GS칼텍스가 저탄소 신사업을 대중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광고제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놀이와 교육으로 풀어낸 'CCU-S(꾸스)' 캠페인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쉽게 전달하는 소통 역량을 인정받았다.

GS칼텍스는 'CCU-S' 캠페인이 '2026 런던국제광고제(London International Awards)'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인(Creativity in) PR 부문 은상과 크리에이티브 전략(Creative Strateg

y) 부문 동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뉴욕페스티벌에서 4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고 8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 전략 부문 크리스탈상을 받은 데 이어 성과다. 광고회사 아이디어와 협업한 이 캠페인은 낮은 CCUS 기술을 체험형 콘텐츠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교구인 'CCUSK IT'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방귀를 탄소 가스에 비유하고, 가스를 포집해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놀이로 구현했다.

체험 교구와 함께 과학 크리에이터 퀘도가 CCUS의 원리를 설명하는 콘텐츠도 선보였다.

/원관희 기자

교육의 미래, 오류를 바로잡을 용기



김혁석

칼럼

지금 교육계는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필자는 1987년 학력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했다. 모두 객관식으로 이뤄진 총 320점 만점의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객관식, 즉 선택형 평가는 객관성과 효율성이라는 분명한 장점을 갖는다. 대규모 수험생의 실력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적다. 하지만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변화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지를 정해진 기간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을까. 평가에 AI를 활용한다면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특히 AI 채점은 새로운 차원의 논란을 불러온다. AI를 활용하면 채점자 간 편차가 사라질 것인가. 모범답안과 표현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변, 출제자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답변까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형화된 답변이 높은 점수를 받고 독창적인 사고가 불이익을 받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수험생들의 피해 주장과 형평성 논란만 보더라도 문제의 복잡성을 짐작할 수 있다.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다루는 시스템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평가자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하는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갈등이 빚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가 변화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더욱 철저한 준비다.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채점 과정의 일관성을 검증하며, AI와 인간 평가자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험생이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란 본래 배우는 과정이다. 배우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조금씩 완전해 가까워지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오류는 피할 수 없다.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충분히 검토하며, 잘못된 판단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공정성이란 단순히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잣대가 타당한지 검증하고, 잘못 적용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포함한다.

교육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도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오류를 성찰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제도 역시 그러한 원칙 위에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완벽한 제도를 약속하기보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 공감대 위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미래 교육을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vbkim11@metroseoul.co.kr

정치는 ‘막대사수’를 한다고 이기지 않는다



기지수첩

서예진
(정치부)

온라인상의 말싸움을 구경하다 보면 기묘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엔 나름의 주장과 근거가 오가지만, 몇 차례 맞붙을 주고받다 보면 논점은 온데간데 없다. 상대가 한마디 하면 바로 한마디를 엮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맞붙을 남기는 사람이 이겼다고 믿는 ‘막대사수’다.

요즘 여권을 바라보면 이 오래된 현상이 떠오른다.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지지층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정치인과 논객의 말이 다시 그 싸움의 소재가 된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두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다만 서로가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하

나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먼저 공격받은 사람이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반박할 권리가 끝없이 공격할 권리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려던 싸움이 어느 순간 ‘너 죽고 나 죽자’로 변한다면, 애초에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도 흐트해진다.

최근 검찰개혁과 인선 등을 둘러싼 여권의 충돌이 우려스러운 모양새로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비판에도 답하고 있다. 직접 소통은 분명 장점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남긴 한 문장은 평범한 댓글이 아니다. 정치권이 해석하고, 지지층이 의미를 부여하는 신호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논

객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적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말이 수많은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표현의 수위 역시 돌아볼 일이다. 날카로운 비판과 상대를 향한 모욕은 같은 말이 아니다. 노선 경쟁이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는 순간, 남는 것은 감정의 앙금 뿐이다.

정치에서 갈등이 사라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이견이 다른 사람들이 끝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두가 마지막 말을 사수하겠다고 나서면, 경쟁의 목적은 잊혀지고 분노만 남는다.

온라인 댓글창에선 마지막 맞붙을 단 사람이 홀로 승리를 선언하면 그만이다. 정치판에서는 말싸움이 끝난 뒤에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그러니 이겨봤자 승리감은 3초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무의미한 승리다.

/ sy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9월 4일) 포춘토리(fortunetory.com)



취

48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60년생** 여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72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84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소

49년생 입조심하세요. **61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73년생**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입니다. **85년생** 일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로랑어

50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2년생**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이십니까? **74년생**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6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도끼

51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세요. **75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87년생** 뜻이 원래하니 이를 알아주는 이들의 도움으로 명예가 생깁니다.



조

52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4년생** 새로운 일을 하면 결과가 가히 창대할 것입니다. **76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뱀

53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5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77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89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

5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66년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78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90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양

5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67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9년생** 외출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1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숭이

56년생 벌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났습니다. **68년생** 자본줄이 막히게 됩니다. **80년생** 동쪽부근에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92년생**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닭

57년생 방향을 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3년생** 능력 있는 뒷사람을 만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

58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0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봄바람이 불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이익이 되는 곳은 동쪽입니다.



돼지

5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71년생** 여러 일을 하는 것은 무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이직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95년생** 소박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춧불 연가

뉴스를 보다 보니 여수의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며 수천 개의 춧불 아래 음악을 즐기는 가을밤 축제가 열렸다. 상상만해도 가을 밤바다를 배경으로 반짝이는 춧불 향연이 장관일 듯하다. 어디 그뿐인가? 춧불은 단순히 작은 인공조명을 뛰어넘는 서사를 지녔다. 춧불은 평안과 쉼을 느끼게도 하지만 경건함에 마음을 수렴하게 한다. 춧불의 매력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동양과 서양 중 어느 지역에서 춧불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 고대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난 후 어둠을 밝히기 위해 나무에 불을 붙인 횃불을 사용했을 것이지만 불붙은 심지를 사용하여 등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나 말뚝이나 와스를 재료로 하는 초의 역사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시적인 호롱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의 도기와 돌로 만든 등불이 발견된 까닭이다. 양초의 경우 역시 언제 어디서 처음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바빌로니아와 중기 미노아 문화 그리고 기원전 삼천 년을 뛰어넘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춧대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공조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초의 기원은 문명의 발달을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호롱불이나 등불을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특히 밀랍 양초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부유층 사이에서 고급 가정용품으로 사용되었기에 일반 서민들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 때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춧불은 꿈 해석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에 춧불이 밝게 타는 꿈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근심·걱정이 사라진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반대로 춧불이 꺼지거나 한다면 상실이나 이별 등을 암시한다고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2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지역인재 지원 5년 새 39% ↑… 치·한·약·수 줄고 의대 몰려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지역선발 수시 지원자 2만8270명
의대 지원자, 전년비 40.3% 늘어
지역의사제 전형 확대에 변화 전망
내년 고교 내신 5등급 제도 변수

지방권 의약학 계열의 지역 인재 전형 응시자가 5년 새 39% 늘었다. 의대 지원자는 전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계열 지원자는 모두 감소해 의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13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전형 수시 지원자는 2만82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2만5573명보다 2697명(10.5%) 늘어난 수치다. 약대 학부 전환이 완료된 2022학년도 지원자 2만284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7986명(39.4%) 증가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2만284명, 2023학년도 2만2168명, 2024학년도 2만737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의대 정원 확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스시스

대가 반영된 2025학년도 3만4347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6학년도 2만5573명으로 줄었지만 2027학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원은 의대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 학생 전형 지원자는 1만5775명으로 전년 1만1247명보다 4528명(40.3%) 증가했다. 반면 치대 지원자는 2566명에서 2348명으로 8.5% 줄었

고, 한의대는 3770명에서 3495명으로 7.3% 감소했다. 약대는 6685명에서 5523명으로 17.4%, 수의대는 1305명에서 1129명으로 13.5% 각각 줄었다.

의대를 제외한 네 계열의 지원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지원자 증가분보다 의대 지원자 증가분이 더 커졌다. 전체 지원자 중 의대 비중도 지난해 44.0%에서 올해 55.8%로 11.8%p 상승했다.

지역별 의대 지원자는 호남권이 77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6668명, 대구·경북 6371명, 충청권 5283명, 강원 1914명, 제주 300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제주가 39.5%로 가장 높았고 강원 25.2%, 부산·울산·경남 13.7%, 호남 13.3%, 충청 8.6%, 대구·경북 1.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권 일반고 994곳을 기준으로 계산한 학교당 평균 지원자 수는 28.4명으로, 2022학년도 20.4명보다 8명 늘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33.6명, 충청 28.1명, 부산·울산·경남 23.6명, 강원 22.5명, 제주 13.6명이었다.

내년부터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확대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66명에서 2028학년도 583명으로 117명 늘어난다. 권역별로는

충청이 30명, 부산·울산·경남이 24명씩 더 선발한다. 호남은 22명, 대구·경북은 18명, 강원은 16명, 제주는 7명 증가한다.

입시업계는 지역의사 선발 확대에 의약 계열의 지원 양상과 합격선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대신 지역 의대에 집중지원한 구도”라며, 지역의사제가 확대되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더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도 변수다. 2028학년도 대입은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로 성적을 산출한 학생들이 처음 응시하는 입시다. 임 대표이사는 1등급 비율이 10%로 확대되면서 내신 상위권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권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지역학생 선발전형 지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rystal@metroseoul.co.kr



metro

교장공모 면접서 개인정보·인맥 노출 시 감점

교육부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
서류심사 감점 기준, 면접까지 확대
단계형·합산형 선정 방식 선택 운영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대면 심사에서 개인정보나 특정인과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심사 점수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별 특성과 교육 구성원의 요구를 고려해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우선 감점 기준을 확대한다. 서류 심사에 한정했던 감점 기준을 면접 등 대면 심사까지 적용한다. 기존에는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 계획서 등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관계

를 드러냈을 때 감점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대면 심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감점할 수 있게 된다.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이 기존의 단계형 방식과 합산형 방식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단계형은 학교 심사에서 만점의 85% 이상을 받은 지원자를 교육청에 추천하고, 교육청 심사에서도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합산형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뒤, 총점이 만점의 85% 이상이면 선정한다.

교육부는 단계형 방식에서 학교 심사를 통과해 교육청 심사에 추천되는 지원자가 한 명에 그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춰 선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 교육

청은 공모 공고 때 선택한 방식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내부형B 공모학교의 지정 비율 산정 방식도 조정한다. 내부형B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다.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 신청 학교의 50% 이내에서 내부형B 공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과 중등을 나눠 비율을 계산하거나 전체를 합산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초등 또는 중등 중 한쪽의 지정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초·중등 전체 신청 학교의 50%를 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사립대 33곳에 5년간 6000억 지원

대상 대학, 입학정원 3% 이상 줄이고
특성화 분야 중심 학과 구조 재편해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별 감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선정된 사립대학 33곳은 5년간 지원받는 대신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 등 총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지원 규모는 5년간 약 6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반도체와 실물인공지능(피지컬AI), 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부터 보건·돌봄, 문화·콘텐츠까지 대학의 기존 교육 역량과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해 특성화 분야를 결정했다.

일반대에서는 경운대, 동명대 등 7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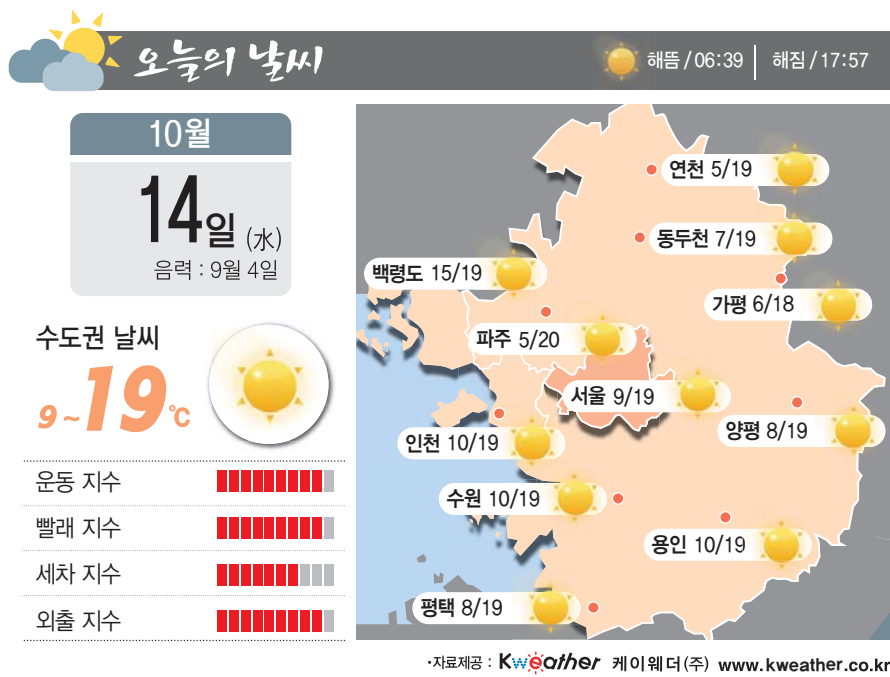
가 첨단·지역전략산업, 고신대 등 6개교가 보건·돌봄·서비스, 경남대 등 3개교가 문화·콘텐츠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첨단·지역전략산업에서 경기과학기술대 등 9개교, 보건·돌봄·서비스에서 대구과학대 등 5개교, 문화·콘텐츠에서 동서울대 등 3개교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지원 대상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별 계획에 따라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비교위 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간 역할을 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합·재편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축소되는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김수정 기자



국민대 전공 변경 유연성 강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바꾸려 해도 몇 학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대학교는 1학년 1학기부터 전과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횟수 제한도 없애, 학생들이 대학 생활 초기에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국민대는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학사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과를 원하는 학생이 기존 전공에서 오랜 기간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수정 기자

서울학생, 내년부터 경남도로 농촌유학 간다

내달부터 참가자 모집 시작

내년부터 서울 학생들이 경상남도에서도 농촌 유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경상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교육청은 내년 1학기부터 경남 지역에서 농촌 유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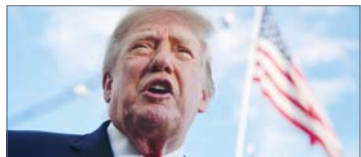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경남에서 유학할 서울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경남교육청은 농촌 유학 운영 학교를 모집하고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거주 시설 확보 등을 지원한다. 양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 달 시작한다. 양 교육청은 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학교 선정과 교육과정·프로그램 구성, 학생 안전 및 생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 농촌유학은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김수정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러 경유길’ 초당적 반발 직면…“합의 취소해야”
/사진 뉴스시스

▲젤렌스키 “정유시설 휴전은 러에만 유리…전력 망도 포함해야”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이란전 판단에 영향 없다”

▲후티 공격 여파에 사우디 리야드 공항 폐쇄 연장…17일까지 중단

▲“사우디, 후티반군 공항 공격에 강경 대응 천명…선택지는 제한적”

▲英·EU, 내달 20일 ‘관계 재설정’ 정상회의의…버남 “EU 재가입 첫걸음”



‘로코노미’ 뜬다
지역 먹거리
주력 상품으로
L1



Life

K-바이오
범용 치료제
총력전
L2



“생약, 성분 같아도 품질 달라… 원료·제조공정까지 살펴야”

속깊은 人터뷰

최 호 영 경희한의대 교수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웰니스(Wellness)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전통 한방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

소비자가 한약(생약)제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성분명과 함량이다. 같은 성분이 같은 양 들어 있다면 제조사가 달라도 사실상 같은 약이라고 판단한다.

혼란은 여기서 발생한다. 같은 성분과 함량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태반인 탓이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한약제제를 비교하며 ‘동일성분·동일함량’임에도 가격이 저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도 등장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보가 제한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최호영 교수(사진)는 “동일성분·함량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완제품의 원료 특성과 제조공정, 전체적인 품질 특성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한약제 감정·규격화 및 품질평가 등을 연구해 온 최 교수를 만나, 한약 제제 일반 의약품을 고를 때 검토해야 할 핵심 내용을 들어봤다.

- 한약 제제의 동일성분 믿어도 되나

“한약은 식물 등 천연물 자체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료 안에도 매우 다양한 화학성분이 함께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일부 성분은 구조나 특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구성 성분을 동정(同定)하고, 각각의 활성을 완전히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특정 성분 하나가 약효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이 한약 제제의 품질을 일관적인 단일성분 중심의 의약품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 같은 식물에서 얻은 생약은 같은 효능을 가진다고 봐도 되나

“그렇지 않다. 같은 식물이라도 뿌리·줄기·잎·열매 등 어느 부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포함되는 성분이 다를 수 있고, 생육환경이나 채취 시기에 따라라도 화학성분의 조성도와 함량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수확 이후 건조와 저장, 가공 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생약에서는 단순히 식물의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원과 사용 부위, 채취·가공 및 보관 과정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웰니스 확산에 한방원료 제품 쏟아져
동일성분·함량에도 제품 특성 달라

산지, 채취시기, 보관 따라 성분 조성 차이
지표성분 외에도 다양한 화학성분 존재

재배환경부터 보관까지 원료 규격화 필요
원료 관리, 품질시험 등 제품 균일성 확보
식약처 허가, 제품별 효능·효과 확인해야



최호영 교수는 한약재의 ‘감정’과 ‘규격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료의 편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안에서 관리해 제조 시거나 로트가 달라져도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약의 품질을 확인할 때 활용되는 ‘지표성분’도 같은 맥락이다. 지표성분은 원료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지만, 생약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화학성분이 존재한다. 특정 지표성분의 함량이 같다고 해서 전체 화학 성분 구성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지표성분’이라는 것은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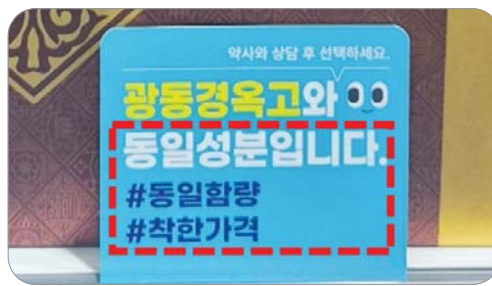
“지표성분은 생약이나 생약제제의 품질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특정 화학 성분을 의미한다. 원료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품 생산과정에서 제조 로트 간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생약에는 지표성분 외에도 다양한 화학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표성분의 함량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화학적 조성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좋은 원료’ ‘규격화된 원료’ 판단법은

“생약의 품질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더라도 식물의 종이나 사용 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기에 산지와 재배환경, 채취 시기, 건조·보관 상태 등을 관리하고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격화된 원료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관리해 일정한 품질의 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최호영 교수는 동일성분·함량이라 하더라도 제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용매를 사용하고 어느 온도에서 얼마 동안 추출하는지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을 평가할 때 원료의 기원과 규격, 추출·제조공정,



약국에 붙은 경옥고 비교 광고.



확인·함량·순도시험, 오염물질, 배치분석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해외에서도 생약의 특성을 고려해 성분뿐 아니라 원료와 제조공정을 함께 살펴보는 품질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생약 유래 신약을 심사할 때 성분 분석뿐 아니라 원료의 재배·채취 과정과 제조공정 등을 함께 살펴본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특정 지표성분의 종류와 함량만으로는 전체적인 품질 보증이 어려우며, 원료의 재배·채취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약회사는 품질 어떻게 유지하나

“자연에서 얻는 생약의 특성상 원료 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종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료 단계에서 기원과 규격을 관리하고, 제조단계에서는 추출·농축·건조 등의 공정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후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각종 품질시험을 통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가 결국 제조로트가 달라져도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 용매, 온도와 시간 등 조건에 따라 성분도 달라질 수 있나

“생약에 포함된 화학성분은 각각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용매를 사용하고 어느 온도에서 얼마 동안 추출하는지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의 종류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조공정에서는 단순히 ‘같은 생약을 추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해진 추출조건을 일

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축과 건조 등 이후 공정 역시 최종적인 추출물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제조공정을 일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동일성분과 함량이라면 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동일한 성분과 함량으로 표시된 한방의약품이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추출·농축·건조 등 제조공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화학적 조성도와 품질 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실제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는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원료나 제조공정의 차이만으로 효능·효과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성분, 함량 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축적해 온 생산 경험과 기술력,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품질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소비자가 좋은 제품 선별하기 위해선 뭘 봐야 하나

“소비자가 제조공정이나 원료의 세부적인 품질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함량뿐 아니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성분·동일함량’이라도 해도 각 제약회사가 사용하는 원료의 특성이나 제조공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만으로 완제품의 품질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화, ‘신임 사령탑’ 류지현 감독과 3년 20억원 계약…단장에 석장현
▲5년 만에 PS서 만나는 ‘잠실 라이벌’ LG vs 두산…WC에선 첫 맞대결
/사진 뉴스시스

▲‘역대급 경쟁’ 김도영·박빈 등 MVP 후보 발표…허인서·문정빈 신인왕 각축
▲축구협회 “일부 선수 향한 도 넘는 비난·인신공격, 자체 부탁”

▲이강인 측, 대표팀 내분설 관여 루머에 “사실무근…법적 절차 진행”
▲“은퇴할게요”, “뭘헐 줄군요”…‘96라인’ 은퇴설에 시·민·SNS 악플 잇따라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